

2018년 12월 19일 제12호  
 연구위원 김남훈  
 연구위원 이주영  
 연구위원 안혜진  
 연구위원 오유진  
 수석연구위원 김민태  
 수석연구위원 김지환  
 수석연구위원 마황

# HIF월간 산업 이슈

## Monthly Industrial Issue

### 산업별 주요 이슈

- 음식료** 소비심리 부진으로 시장 확대가 제한되나, 기타 식품 수요는 견조
  - 최근 고용환경 악화로 부진한 소비 심리 상황이 지속되고, 2019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음식료 시장의 성장이 제한될 전망
  - 품목별로는 HMR·건강기능식품 등의 기타 식품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신선 및 소재식품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업종별 차별화된 시각이 유효
- 의류** 고용 불안, 소비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전망
  - 고용불안,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2019년 의류업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며 소비자 세분화와 진입장벽 축소로 브랜드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 심화가 예상됨
  - 경쟁 심화 속에 대형 업체들은 브랜드 확대, 사업 다각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을 이어나갈 전망
- 정유** 초과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업은 양호한 수익성 유지될 전망
  - 2019년 세계 정제설비 증설 확대로 정유제품의 초과 공급이 우려되나, 국내 정유업의 경우 IMO2020에 따른 저유황유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2019년에도 양호한 실적이 유지될 전망
  - 각 정유사별 고도화설비율에 따라 저유황유 공급 능력과 P-X 등 석유화학 사업 비중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각 정유사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여신정책 필요
- 석유화학** 전년대비 수익성 하락 예상되나 여전히 고점 수준의 호황 유지될 전망
  - 2019년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와 수요부진에 따른 초과공급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의 경우 對중국 수출 확대에 따른 수급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어 여전히 호황이 유지될 전망
  - 각 기업별로 주력 화학 사업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유가 상승, 마·중 무상분쟁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각 기업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여신정책 필요
- 철강** 전방산업 부진 및 통상환경 악화로 실적 부진 예상
  - 2019년 무역마찰이 고조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 세계 철강수요는 전년대비 다소 둔화될 전망
  - 국내 시장은 전방산업 부진 및 통상환경 악화로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되며, 특히 中 전기로 확대, 국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기로 제강사를 포함한 비고로사 실적 부진 우려

- 반도체** **Big2 수익성은 여전히 좋으나 중소 업체들의 실적 부진 지속**

  -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가동률과 생산량지수가 동반 상승했으며 수량 기준 DRAM과 플래시메모리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냄
  - 급격한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결과로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잉이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업체들의 실적 부진 지속
- 휴대폰** **중국 및 선진국 수요 침체 영향으로 '19년까지 부진이 예상되는 스마트폰 시장**

  - '17년부터 감소세를 지속 중인 스마트폰 시장은 인도시장의 성장 및 5G 및 플렉시폰 출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선진국 시장 포화에 따른 영향으로 침체가 지속될 전망
  - 세트업체의 원가부담 증가에 따른 납품업체들의 생산마진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선별적인 여신운영과 범용부품 등에 대한 보수적 심사기조 유지 필요
- 자동차**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산업**

  - 2019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의 후유증, 신흥국 환율의 부정적 효과, 미국發 자동차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019년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금융그룹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선별적인 여신공급 기조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용여건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조선** **해운업 수급개선과 환경규제로 점진적 회복세 지속 전망**

  - 2018년 1~11월 누적 선박 발주량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26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내 조선사 전체 수주량은 LNG선의 대량 발주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4.2%나 증가
  - 내년 조선업은 해운업 수급 개선, 2020년 시작되는 환경규제에 따른 폐선 증가, 건조한 LNG선 발주 지속으로 점진적인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체 실적 또한 개선 예상
- 발전** **태양광 발전, 발전소 입지 선정 요건 강화, 환경갈등 문제 등으로 둔화 예상**

  - 2018년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약 1.8GW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발전소 입지 선정 요건 강화, 환경갈등 문제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7GW가 될 전망
  - REC 공급 확대로 현물 REC 가격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현물거래 프로젝트는 주의가 요구되며,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할 필요
- 건설** **건설경기 활황국면에서 벗어나 후퇴기에 진입할 전망**

  - 건축부문의 공급과잉, 정부의 주택수요 규제 강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저유가로 인한 중동 지역 수주 개선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GTX 등 민자사업의 확대, 아시아 지역 수주 확대 등의 호재도 있으나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후퇴국면 진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
- 유통** **성장을 둔화 속에 업체별 차별화된 실적 예상**

  - 비소비지출 부담 증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2019년 전체 소매 시장 성장은 둔화될 전망
  - 성장성이 약화된 편의점, 대형마트 시장에서의 점포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온라인, 면세점은 양호한 성장성은 지속되겠지만 대기업들의 참여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전망
- 해운** **벌크선 및 탱커선 운임 개선, 컨테이너선 운임 정체 전망**

  - 내년 해운업은 전반적으로 수급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선종별로는 벌크선과 탱커선은 운임 소폭 상승, 컨테이너선은 2017~2018년 운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주요 해운선사들은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 운임 변동에 크게 관계없이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컨테이너선사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다소 시일이 필요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 산업 전망

소비심리 부진으로 음식료 시장 확대 제한되나, 기타 식품 수요는 견조  
 의류, 고용 불안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전망  
 초과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업은 양호한 수익성 유지될 전망  
 전년비 수익성 하락 예상되나 여전히 고점 수준의 호황 유지될 전망  
 철강업계, 전방산업 부진 및 통상환경 악화로 실적 부진 예상  
 반도체, Big2 수익성은 여전히 좋으나 중소 업체들의 실적 부진 지속  
 중국 및 선진국 수요 침체 영향으로 '19년까지 부진이 예상되는 스마트폰 시장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산업  
 해운업 수급개선과 환경규제로 점진적 회복세 지속 전망  
 태양광 발전, 발전소 입지 선정 요건 강화, 환경갈등 문제 등으로 둔화 예상  
 건설경기 활황국면에서 벗어나 후퇴기에 진입할 전망  
 종합유통, 성장률 둔화 속에 업태별 차별화된 실적 예상  
 벌크선 및 탱커선 운임 개선, 컨테이너선 운임 정체 전망

## C10. 음식료 : 소비심리 부진으로 음식료 시장 확대 제한되나, 기타 식품 수요는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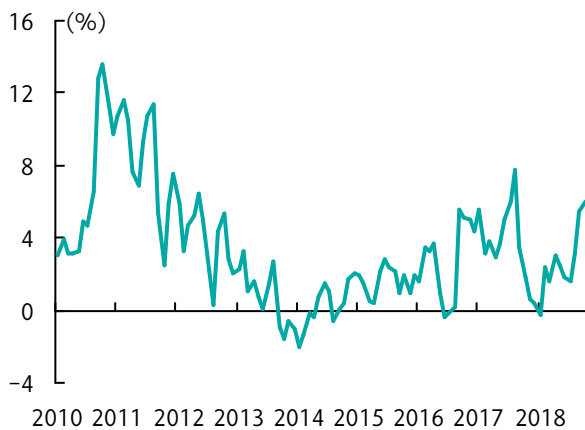
※ **Summary** : 최근 고용환경 악화로 부진한 소비 심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19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음식료 시장 확대가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및 국민소득 향상 등의 영향으로 기타 식료품 중 가정간편식(HMR)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성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한편 국제 곡물가격 안정 및 원화 약세 기조로 원가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Comment** : HMR·건강기능식품 등의 기타 식품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신선 및 소재식품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부 업종별 차별화된 시각이 유도

### ■ 2018년 제품가격 인상으로 수익 개선되었으나, 2019년 소비심리 부진으로 실적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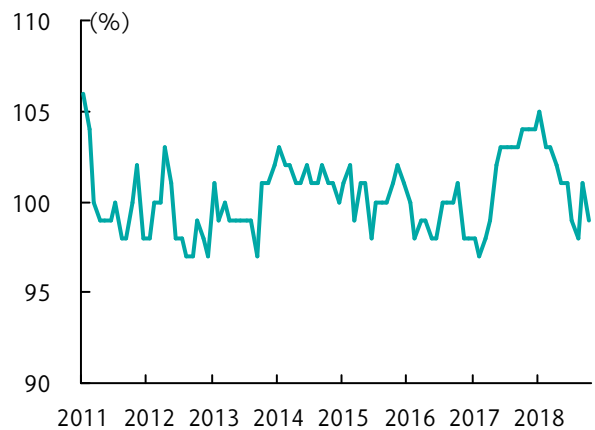
- 2018년 원부자재 비용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원가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음식료 업체는 대대적인 제품가격 인상을 단행
  - 2018년 초 생수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라면, 과자, 음료(우유/비알콜/알코올) 등으로 범위가 확대
- 또한 사드 이슈가 희석되면서 중국시장 내 신제품 출시 효과 등을 바탕으로 한국 음식료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업체 실적이 소폭 개선
  - 상반기 국내 음식료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
- 그러나 최근 고용환경 악화로 부진한 심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9년 실적 둔화 우려감 점증
  -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위주의 소득증가, 조세·사회보험·연금 등의 비소비지출 부담 확대로 2019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0.2%p 하락한 2.5% 예상

그림1 | 국내 음식료 제품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2 | 국내 가계수입전망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 하 음식료 품목별 시장 차별화 예상

- 최근 음식료 산업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국민소득 향상 등의 영향으로 기타 식료품 중 가정간편식(HMR)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성장 추세를 시현 중
  - 음식료 산업의 성장률이 5% 미만인데 반해 HMR 및 건강기능식품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 향후 인구구조 변화(1인가구 및 맞벌이 가정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HMR 시장은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음식료 시장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지속성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비자 니즈가 확대되면서 연령별·기능별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꾸준한 성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
- 다만 워라벨 문화 확산 및 52시간 근무 등으로 주류 수요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편의를 중시하는 가공 및 식사대용식품이 확대에 따라 신선 및 소재식품 수요가 둔화될 전망

■ 한편, 국제 곡물가격 안정은 원가에 우호적이며, 품목별로 실적 차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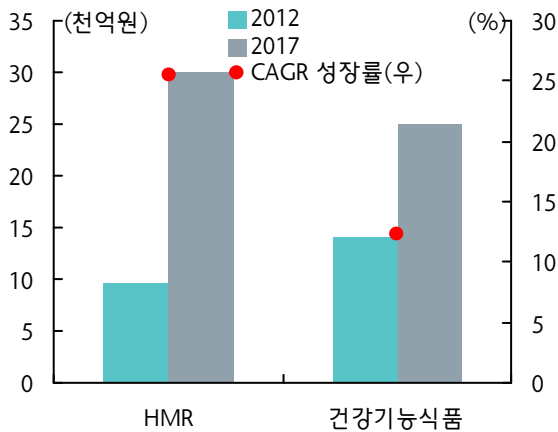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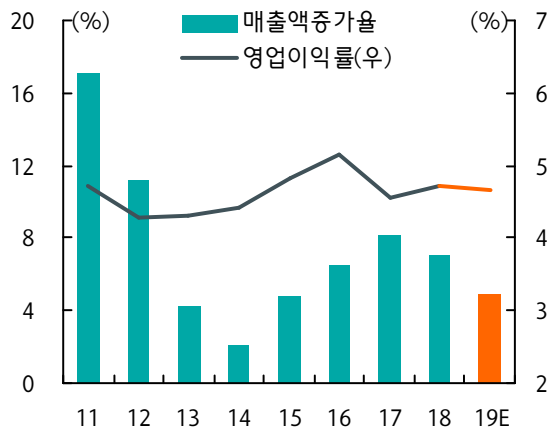
- 원재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음식료 업체는 2019년 국제 곡물가격 안정 및 원화 약세 기조가 예상되면서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
  - 美 농무성(USDA) 자료(18.10)에 따르면 18/19 주요 곡물(소맥·대두·옥수수) 수급 안정 예상
- 또한 웰빙 트렌드를 앞세운 고부가가치(고급화·기능화) 판매비중 확대로 평균판매 단가(ASP) 인상 효과가 기대되면서 전년 수준의 수익률 유지할 전망 

그림3 | 주요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자료 : 업계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4 | 식료품 제조업 실적 전망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14. 의류 : 고용 불안, 소비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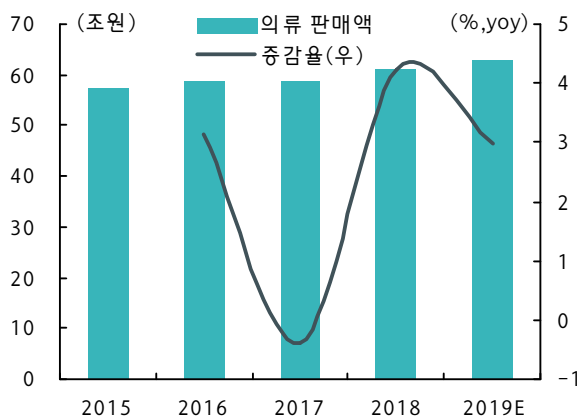
※ **Summary** : 2018년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낸 의류업은 고용불안,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2019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취향 세분화와 유통 및 생산의 진입장벽 축소로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경쟁 심화,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의류 업체들은 자체 온라인 채널 확대 노력과 함께 브랜드 확대, 사업 다각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 **Comment** : 장기적인 성장성이 제한적인 의류업에서 브랜드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업체별 재고 관리 능력, 사업다각화 실적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필요

### ■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낸 의류 제조업은 2019년, 고용 불안, 소비 심리 위축, 중저가 채널 성장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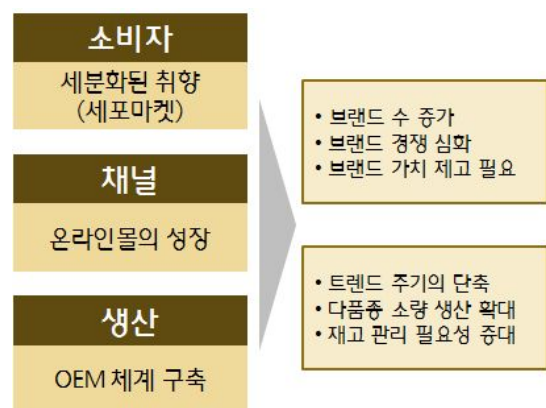
- 2018년 의류 판매액은 3분기부터 기저효과와 이연소비 실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기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 실현
  - 의류판매액은 2018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4% 성장한 약 61조원으로 추정
- 2019년, 고용 불안과 소비 심리의 위축, 중저가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 지속, 전년도 높은 성장에 대한 역기저효과 등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의류판매액은 전년대비 3% 성장한 약 63조원으로 예상
  - 2018년 11월 의류비 지출전망 CSI는 전월 대비 3p 하락(97)하며 기준점(100) 하회
- 시장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의류 시장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의 성장 예상

그림5 | 의류판매액 추이 및 전망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6 | 최근 의류시장의 변화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소비자 취향 세분화, 유통 및 생산의 진입 장벽 축소에 따라 브랜드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 심화와 다품종 소량 체계로의 전환이 확대될 전망

-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극도로 작은 단위의 소비 시장(세포 마켓)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의류 채널 확대, OEM을 통한 외주 생산 보편화로 유통 및 생산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세포마켓에 대응 가능한 소규모 브랜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10월 의류 판매액 증감율 : 무점포소매 31.8%, 백화점 7.9%, 대형마트 -19.8%
- 브랜드 수 증가는 경쟁 심화와 브랜딩의 필요성 증가를 야기하고, 트렌드 주기 단축에 따른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
  - 상장 25개사 의류 업체들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18년 상반기 5.04%로 전년동기(5.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브랜드 마케팅 비용 증가와 다품종 소량에 따른 재고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성장 정체와 경쟁 심화 속에서 대형 업체들은 브랜드 확장, 사업 다각화 등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가져갈 전망


- 성장 정체의 국내 의류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형 의류 업체들은 자체 온라인몰을 확대하여 유통 수수료 절감에 힘쓰는 한편, 브랜드 확대, 사업 다각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한 성장성 확보 노력도 지속할 전망
  - 한섬 : 브랜드 증가를 통한 소비자 커버리지 확대 전략을 시행 중
- 사업 다각화 전략을 확대 중인 신세계인터내셔널과 LF는 각각 계열 유통사와의 시너지와 광범위한 수평적 사업 다각화 전략을 시행
  - 신세계인터내셔널 : 화장품, 가구 등의 소비재 사업을 확대
  - LF : 음식료 유통, 방송, 부동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로 사업 확대 

표1 | 대형 의류업체들의 사업 전략

회사명	사업 전략	내용
한섬	브랜드 확장	- 2017년 SK네트웍스('타미힐피거', '시스템' 등 운영) 인수 - 브랜드 신 사업인 '더캐시미어', '레트바이더' 확대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 리빙 등 소비재분야 진출	- 2012년 화장품 '비디비치' 인수 - 해외 화장품 브랜드 '바이레도', '딤디크', '아워글래스'의 국내 판권 소유 - 리빙 브랜드 '자주' 운영
LF	음식료 유통, 방송, 부동산 등 수평적 사업 확대	- 2007년 LF푸드 설립 - 2017년 '구르메 F&B'(유럽 식자재), '모노링크'(일본 식자재), '인덜지'(주류 유통) 등 6곳의 음식료 회사 인수 - 패션채널 '동아TV' 인수(2015), 여행채널 '플라리스TV' 인수(2017) - 2018년 코람코자산신탁 인수

자료 : 언론자료 취합



## C19. 정유 : 초과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업은 양호한 수익성 유지될 전망

※ **Summary** : 2019년 연평균 배럴당 70달러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세계 원유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중동 중심의 정제설비 증설 확대로 초과 공급이 우려. 다만 국내 정유 공급상황은 IMO2020에 따른 등/경유 등 저유황유 수요 증가 효과로 개선될 전망. 한편 공급개선에 따른 주요 정유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정제마진도 전년비 개선될 것으로 보여 2019년 국내 정유사는 양호한 실적이 유지될 전망

※ **Comment** : 각 정유사별 고도화설비율에 따라 저유황유 공급 능력 및 P-X 등 석유화학 사업 비중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각 정유사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여신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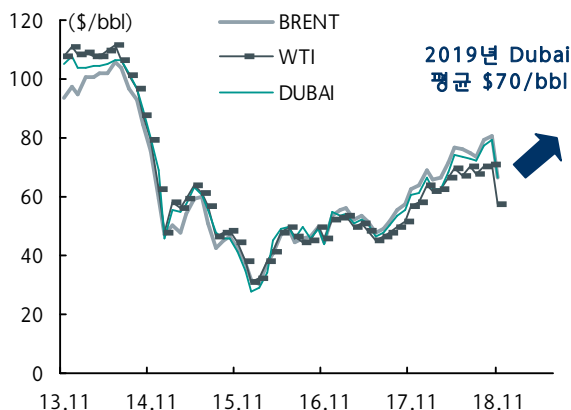
### ■ 2019년 국제 유가는 연평균 배럴 당 70달러 내외로 전망

- 2018년 유가는 미국 원유 수요 및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했으나 10월 이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 미국의 이란 제재 완화로 하락 전환  
- \$66.2/bbl('18.1) → \$73.6/bbl('18.6) → \$79.4('18.10) → \$66.3('18.11)
- 2019년에도 유가 상승, 하락요인이 혼재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 상승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연평균 배럴 당 70달러 내외의 유가를 기록할 전망  
-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OPEC 감산 재개, 미국 원유 생산 증가세 둔화 등 유가 상승요인 확대

### ■ 2019년 세계 원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 증설이 증가로 초과 공급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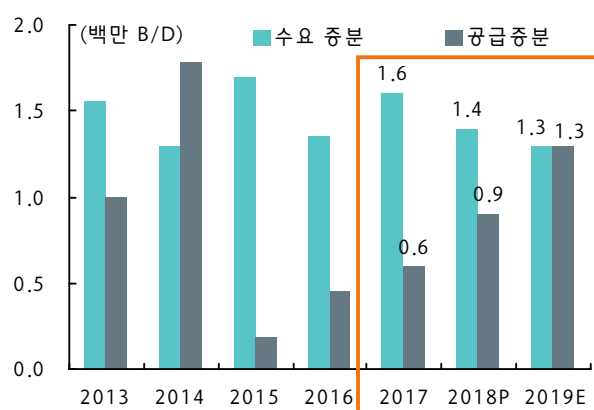
- 2019년에도 고유가가 지속으로 자동차 주행 거리 감소가 예상되며,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체감 유가 상승으로 정유 제품 수요 둔화될 전망  
- EIA는 2019년 원유 수요를 기존 전망 대비 11만 b/d 낮은 130만 b/d로 전망

그림7 | 국제 유가 추이 및 전망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8 | 글로벌 정유제품 공급 및 수요 증가 추이



자료: EIA

- 반면 정유제품 공급은 2019년 중국, 중동, 미국 등에서 총 170만 b/d의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노후 설비폐쇄를 감안하더라도 공급증가분은 130만b/d로 전년비 30% 증가
- 향후 2021년까지 연평균 160만 b/d의 신규 정제설비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유제품의 초과 공급이 우려

■ 2019년 국내 정유 수급상황은 IMO2020 효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2018년 국내 정유 공급은 전년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수요는 유가 강세로 운송용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수출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전년비 0.9% 증가 그쳐 수급상황이 악화
  - 1~10월 누계 국내 정유제품의 초과 공급량은 전년동기비 40% 증가한 3,800만 배럴로 확대
- 그러나 2019년 하반기 IMO(국제해사기구)2020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저유황유(LSFO, MGO)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도화(탈황) 설비를 구축을 통해 저유황유 공급이 가능한 국내 정유사들의 수급상황 개선이 기대
  - 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낮춤에 따라 벵커C유와 같은 고유황유는 등유, 경유 등의 저유황유로 대체해야 함

■ 2019년 정유제품 정제마진 개선, P-X 사업부문 실적 호조로 정유사 실적은 양호하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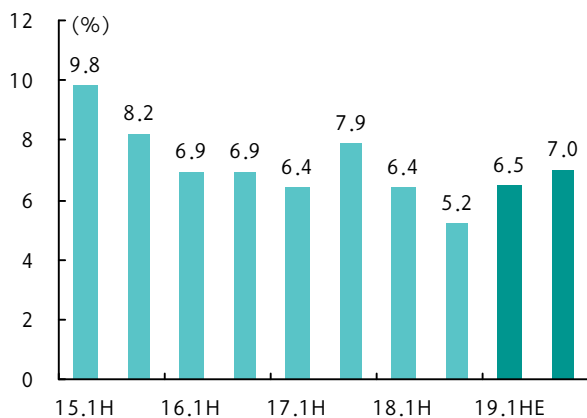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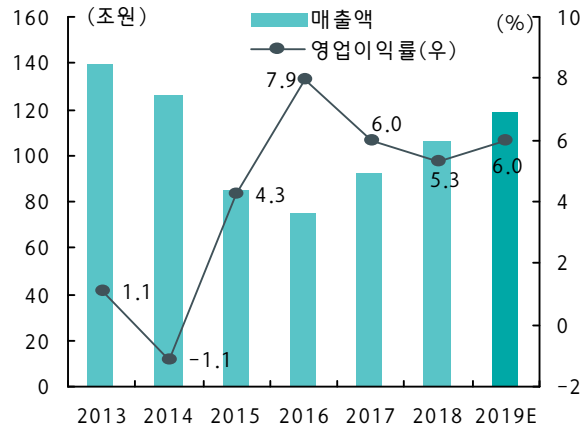
- 2019년 유가 강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IMO 2020에 따른 등유, 경유 수요 증가로 제품가격으로 전가가 용이해지면서 국내 정유제품의 정제마진은 개선될 전망
  - 복합정제마진: \$5/bbl 내외('18.2H)→ \$6~7/bbl('19E)
- 여기에 P-X 사업의 호황으로 화학 부문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어 2019년 국내 정유사의 매출액은 전년비 약 10% 증가, 영업이익률은 5~6%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전망 

그림9 | 국제 유가 및 복합정제마진 전망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망

그림10 | 주요 정유사 실적 전망



자료: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망

## C20. 석유화학 : 전년대비 수익성 하락 예상되나 여전히 고점 수준의 호황 유지될 전망

※ **Summary** : 2019년 미국의 대규모 ECC 증설이 일단락되나 세계 경기 불안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초과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對중국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수급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2019년 고유가 속에서도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으로 스프레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 주요기업의 실적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

※ **Comment** : 각 기업별로 주력 화학 사업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유가 상승, 미·중 무상분쟁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각 기업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여신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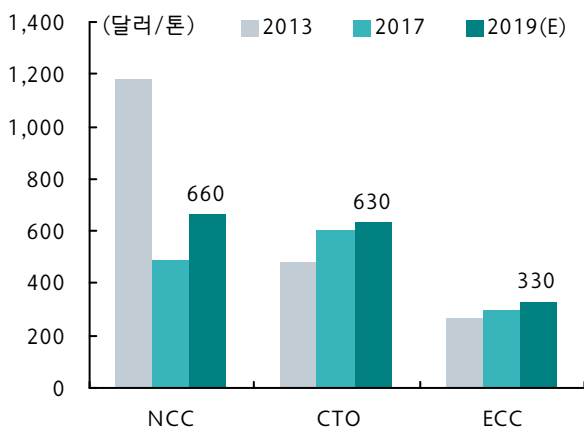
### ■ 유가 강세로 NCC 기반 석유화학 제품 경쟁력 하락

- 2019년 유가는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평균 배럴 당 70달러 내외 강세를 기록할 전망으로 석유 기반 나프타 생산 제품은 에탄 및 석탄 기반 제품 대비 경쟁력 하락 불가피
  - NCC 기반 화학제품은 유가 \$60/bbl 이하에서 ECC 및 CTO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
- 특히 유가 강세로 미국 ECC 기반 에틸렌계 제품은 경우 운송비를 포함하더라도 아시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져 한국 및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의 위협요인으로 부상

### ■ 2019년 미국 ECC 증설은 일단락되나 수요 둔화로 초과 공급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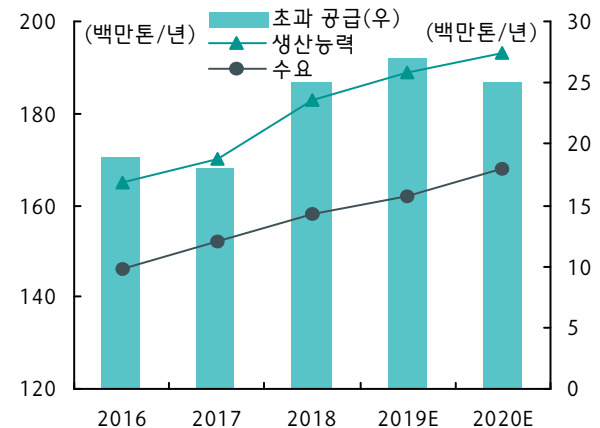
- 2018년 Chevron Philips의 상업개시를 시작으로 북미 ECC공급 증가로 글로벌 공급량이 확대되었으나 2019년 하반기 북미 ECC 증설 일단락으로 공급증가세는 완화될 전망
  - 북미 에틸렌 순증가량 : 200만톤/년('17) → 510만톤/년('18) → 290만톤/년('19E)

그림11 | 원료별 에틸렌 제조원가 비교



주 : '13년 평균 유가 \$105/bbl, '17년 평균 유가 \$52/bbl, '19년 평균 유가 \$75/bbl  
 자료 : EI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2 | 세계 에틸렌 수급 전망



자료: Chemlocus

- 그러나 2019년 세계 경기 둔화 및 신흥국 수요 위축, 주요 산업경기 둔화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2019년까지 에틸렌 초과 공급은 확대 전망
  - 에틸렌 초과 공급량 : 1,800만톤('17) → 2,500만톤 ('18) → 2,700만톤('19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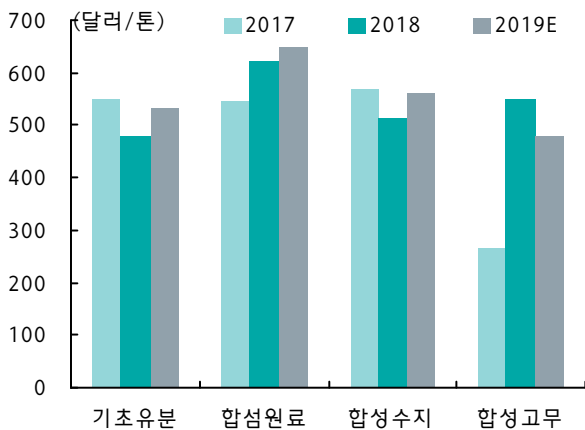
■ 2019년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對중국 수출회복의 영향으로 수급상황이 소폭 개선될 전망

- 2018년에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상승한 북미 ECC 기반 화학제품이 아시아 및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수출이 전년비 위축
- 그러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반사이익, 중국 경기부양에 따른 인프라투자 확대로 중국 화학제품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對중국 수출 회복이 기대
  -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 시 중국 시장 내에서 가격이 상승한 미국 제품을 대체하여 국내 제품의 對중국 수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19년 SOC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수요 증가 가능성 有

■ 2019년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주요기업의 실적 호조는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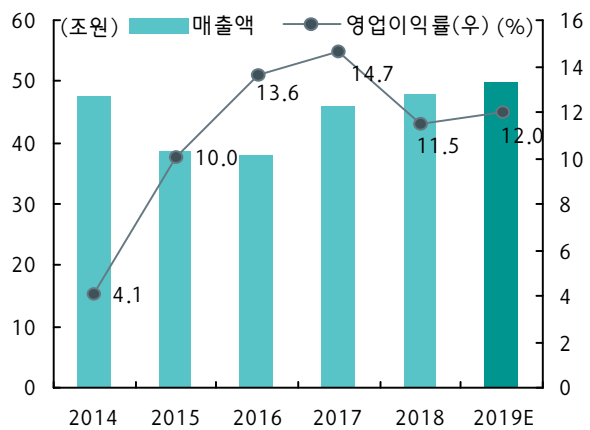
- 2019년 국내 석유화학 수급 개선, 중국 수요 강세에 따른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는 전년비 회복될 전망이며 과거 5년 평균 대비로도 높은 수준 유지
  - 2019년 주요제품 스프레드 증감율(YoY): 기초유분 10%, 합섬원료 5%, 합성수지 10%
- 이에 따라 2019년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비 약 5% 증가할 전망이며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수준인 11~12%에 달할 것으로 예상 ㉠
  - 합산영업이익률은 2017년을 고점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고점 수준의 호황 지속

그림13 | 주요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 추이 및 전망



자료 : Cischem,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망

그림14 | 주요 석유화학기업 합산 실적 전망



주 :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대한유화, 카프로, 여천NCC 6개사 합산  
 자료: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망

## C24. 철강 : 전방산업 부진 및 통상환경 악화로 실적 부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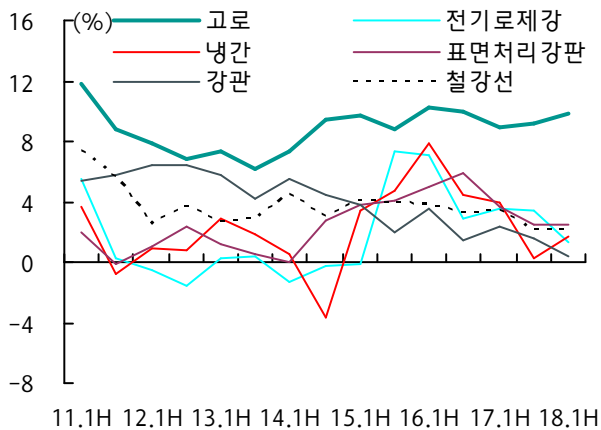
※ **Summary** : 2019년 무역마찰이 고조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 세계 철강수요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최근 2년(16~17)간 철강수요가 감소한 국내 시장의 경우 2019년 전방산업 부진 및 통상환경 악화로 부정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될 전망. 특히 中 전기로 확대, 국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기로 제강사를 비롯한 非고로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더욱 부진할 전망

※ **Comment** : 향후 국내 철강산업 둔화 속에 판재류 대비 봉형강 시장이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신정책 상 관련업체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

### ■ 2018년 국내 철강업계,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으로 업체 실적 다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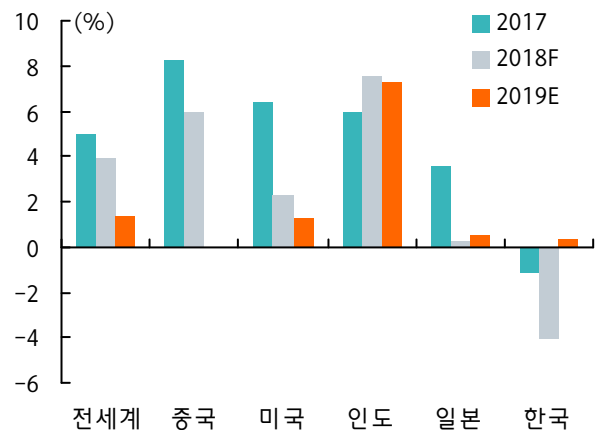
- 2018년 국내 전방산업 부진과 美 트럼프 정부로부터 시작된 통상환경 악화(美 쿼터제 시행 등)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 내수 및 수출이 동반 악화
  - 자동차, 건설 등 수요산업 경기 부진으로 판재류 내수 부진, 對미 유정용 강관 수출이 급감
- 수급 불안과 함께 국내외 철강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철강업체의 수익률이 다소 하락
  - 상반기 국내 철강 상장사(POSCO, 현대제철 제외)의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2%p 하락
- 특히 업종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는 고로사(POSCO, 현대제철)와 非고로사(전기로 및 하공정) 간 차이가 확대
  - 일관제철공정을 겸비한 고로사는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한 반면, 하공정 업체의 수익은 축소

그림15 | 철강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Kis-Value

그림16 | 글로벌 철강수요 전망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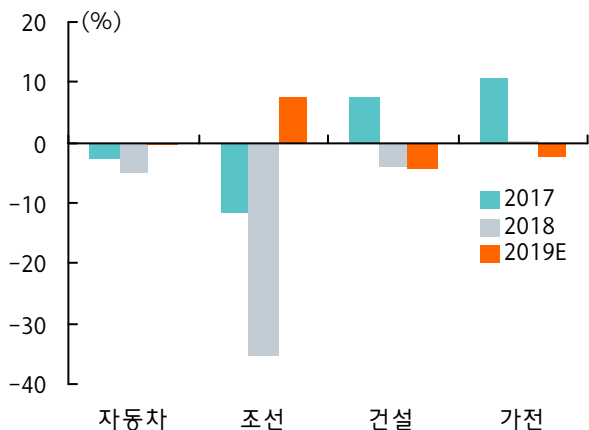
■ 2019년 전 세계 철강 수요가 둔화되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시장 수급 약화 우려

- 2019년 미중 무역갈등 등의 무역마찰이 고조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 세계 철강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선진국(미국·EU)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중국시장이 크게 둔화될 전망
  -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철강수요가 전년대비 1.4% 증가한 16억 5,7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무역분쟁, 산업경기 둔화 등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
- 최근 2년(16~17)간 철강수요가 감소한 한국의 경우 2019년 전년 수준의 수요를 유지할 전망
  - 2018년 하반기 이후 수요산업 둔화로 국내 조강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향후 부진 지속

■ 전방산업 부진 및 통상환경 악화로 불확실성 지속되며, 非고로사를 중심으로 실적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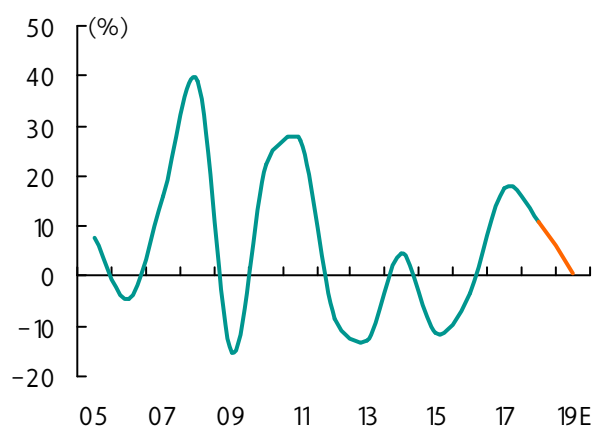
- 2019년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철강 전방산업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철강 전 제품의 내수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자동차 내수·수출 동반 부진 지속, 건설 민간 주택건설 축소, 조선 수주 회복되면서 저점 통과
- 한편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 對美·EU 철강 수출 감소 현실화, 미중 무역분쟁 하 중국의 구조조정 속도 조절은 수급에 부정적
- 2017년을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의 매출증가율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판재류 대비 봉형강 부문이 더욱 부진할 전망
  - 中 전기로 확대, 국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기로 제강사를 비롯한 非고로사 실적 둔화 우려

그림17 | 국내 전방산업 경기 전망



주 : 자동차 생산, 조선 건조량, 건설 투자, 가전 생산 기준  
 자료 : 업계자료 종합

그림18 | 국내 철강업체 매출증가율 전망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26. 반도체 : Big2 수익성은 여전히 좋으나 양극화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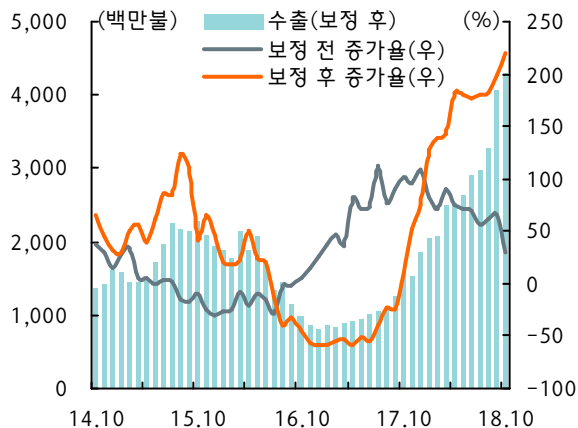
※ **Summary** : 지난 2년간 전 세계 반도체 설비투자가 급증했으며 그 결과로서 지난해 말부터 공급과잉이 시작되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메모리 가격 하락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수익성은 낮아지겠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그러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면 Big2를 제외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지속될 전망

※ **Comment**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Big2의 실적이 좋을 때도 중소 반도체 제조업체의 실적은 매우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Big2의 실적마저 하강 국면에 진입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 요망

### ■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상승하며 생산활동, 수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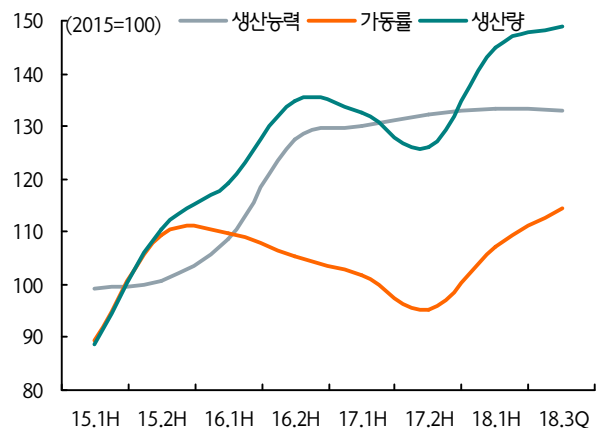
-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가동률과 생산량지수가 동반 상승했으며 수량 기준 DRAM과 플래시메모리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냄
  - 수량 기준 수출증가율: DRAM 5.0%, NAND 35.8% (지난해: DRAM -1.4% NAND 9.0%)
- 가격효과 보정 시 2017년 DRAM 수출은 오히려 23.8% 감소했었는데 올해는 16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2018년 상반기 계절조정동률지수는 전기비 11.5% 상승한 106.3을 기록했으며 생산량지수는 전기비 11.0% 상승한 139.7을 기록
  - 2017년 하반기 계절조정가동률지수는 최근 4년 동안 최저인 95.3을 기록했음
- 그러나 상반기에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던 반도체 수출은 점차 가격 하락 및 역기지 효과로 인해 하반기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어 11월에는 11.6%까지 낮아짐

그림19 | DRAM 수출 동향 (가격효과 보정 전, 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블룸버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0 | 국내 반도체 제조업 생산활동



자료 : 통계청

■ 메모리 반도체 Big2의 수익성은 역대 최고 수준, 양극화는 더욱 심화

- 메모리 가격은 2017년 11월을 고점으로 하락 전환되었으며 지난 1년간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가격 수준은 BEP를 훨씬 상회하므로 수익성은 우수
  - 가격 변동률: DDR3 4Gb -27.1%, NAND 64Gb -29.0%)
- 2018년 상반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각각 78.4%, 46.5%를 기록했으며 3분기에는 가격 효과로 다소 낮아져 각각 47.1%, 28.7%를 기록
- 1년에 걸쳐 메모리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나 그동안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Top3는 상반기는 물론 3분기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달성
  - 3분기 영업이익율: SK하이닉스 56.7%, 삼성전자 55.1%, 마이크론 66.7%
- 그러나 Big2를 제외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실적은 더욱 악화되어 2018년 상반기 실적 기준 전체 기업의 54.2%는 매출이 감소했으며 42.4%는 영업적자를 기록

■ 가격 하락 지속되고 Big2 영업이익은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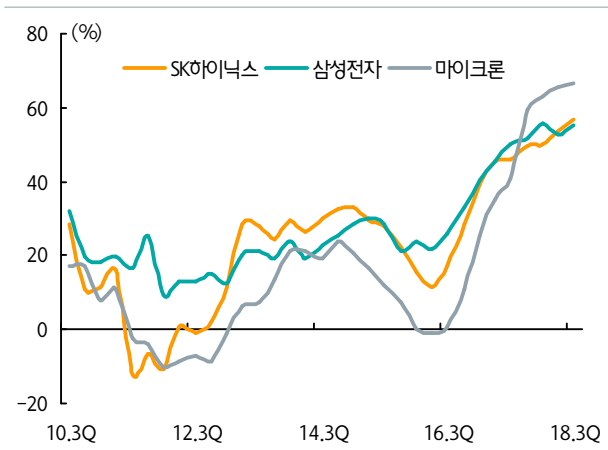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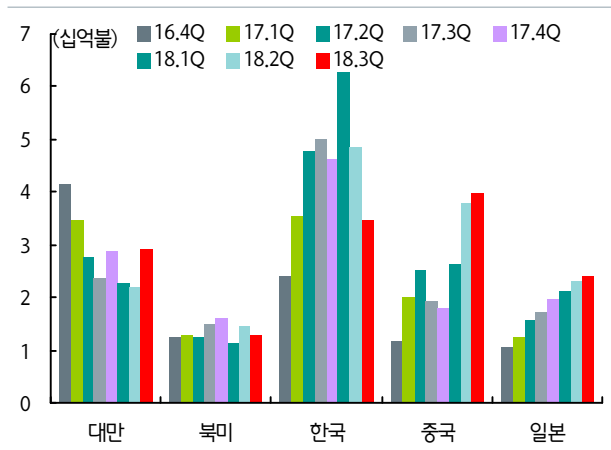
- 전 세계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는 반기당 150~210억불 수준이었는데 2016년 하반기 225억불을 기록한 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 상반기에는 337억불까지 증가
- 설비투자 확대로 공급과잉이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내년 설비투자는 다소 축소되나 중국은 오히려 설비투자 규모를 확대해 시장점유율 잠식이 시작될 전망이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그림21 | 주요 DRAM 제조업 영업이익률



자료 : 각 사 자료

그림22 | 국가별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



자료 : SEMI



## C26. 휴대폰 : 중국 및 선진국 수요 침체 영향으로 '19년까지 부진이 예상되는 스마트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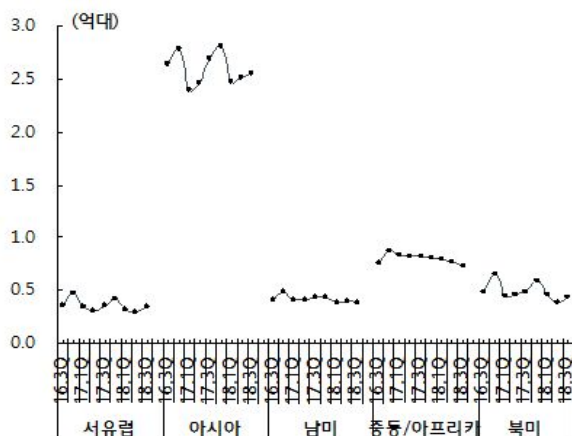
※ **Summary**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및 선진국 시장 포화에 따른 영향으로 '17년부터 감소세를 지속 중. 이로 인해 국내 세트업체의 출하량도 역성장 중이며 특히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인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던 삼성도 샤오미에 1위를 내주며 점유율이 정체된 상황. '19년 5G 및 플렉시블폰 출시 등에 따른 회복 이슈를 기대하나 전체 시장을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기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카메라 등 일부 부품에 대한 수요는 호조를 보일 듯

※ **Comment** : 출하량 역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트업체의 원가부담 증가에 따른 납품업체들의 생산마진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선별적인 여신운영과 범용부품 등에 대한 보수적 심사기조 유지 필요

### ■ 시장 포화와 뚜렷하게 수요를 견인할 요인 부족으로 '19년까지 스마트폰 시장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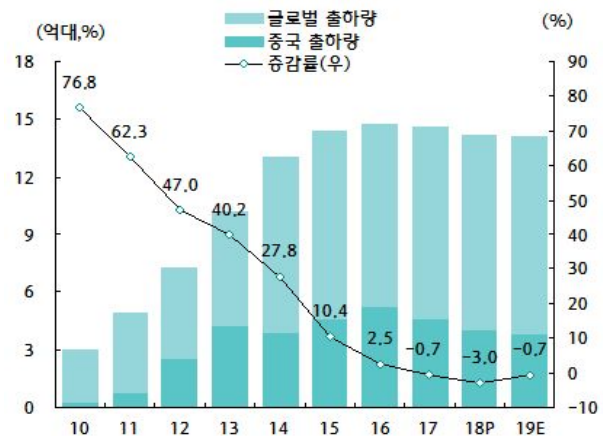
- '18년 스마트폰 시장은 교체주기 장기화와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과 중국의 역성장으로 인해 인도 등 신흥시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3%의 역성장을 기록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증감률 : -0.7%('17) → -3.0%('18) → -0.7%('19E)
- 중국시장은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 축소에 따른 4G가입자 순증규모 감소로 출하량도 전년대비 10%대로 감소하며 역성장 지속 중
  - 중국 내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 : 14%('16) → -12%('17) → -13%('18P)
- 반면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중심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는 분기 평균 전년비 10%이상 성장하며,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비중 : 인도 8.5%('17) → 10.3%('18.3Q), 중국 31.9%('17) → 30.6%('18.3Q)

그림23 | 지역별 분기별 휴대폰 출하량



자료 : IDC

그림24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자료 :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중국업체들의 약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세트업체들의 신흥시장 점유율 하락세 지속

- 중국 2세대 대표 스마트폰 업체들의 중국 내수시장 안착과 자국 시장 정체에 따른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으로 인해 중국업체들의 신흥국 점유율 상승세 지속
  - 중국업체들(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의 글로벌 M/S : 31.3%('17.2Q) → 40.9%('18.3Q)
- 삼성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단자리수 초반대로 하락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도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되며 삼성의 점유율 하락
  - 샤오미는 삼성을 제치고 인도시장 M/S 1위 유지 : 4%('16.1Q) → 14%('17.1Q) → 31%('18.1Q)
- 특히 로컬업체들의 80%에 이르는 자국 점유율 상승과 국내 업체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삼성은 인도 공장 확충과 중국 철수(텐진 공장)등으로 생산기지 조정을 진행 중

■ 5G도입과 폼팩터 변화가 시작되나, '19년까지는 경쟁심화와 시장포화로 출하량 역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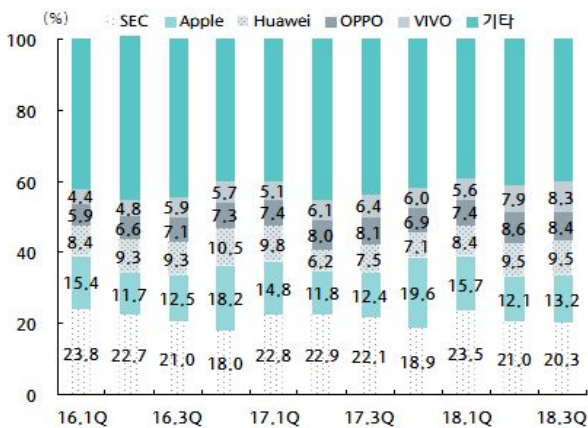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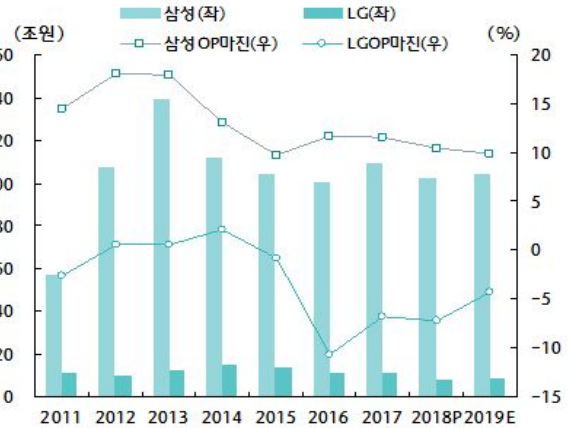
- 중국, 일본, 한국 등 5G 도입이 '19년부터 시작되나, 전국망 구축과 상용화 시기를 감안 시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19.3월 일반인 대상 5G개시(韓), '20년까지 전국망 구축과 상용화(中), '20년 5G상용화(日)
- 다만, 멀티카메라 탑재, 메모리 증대 등 고사양화를 통한 프리미엄폰이 단말기 가격상승으로 전체 스마트폰 ASP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는 커질 듯
  - 세트업체들은 중가(中價) 라인업을 강화하되 고사양화와 폼팩터 차별화를 통한 판가상승 전략 지속
- 한편, 증가제품 기능보강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세트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카메라 모듈, 메모리, 지문센서 등 관련 부품에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그림25 | 주요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료 :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6 | 국내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주 : 각 사 IM, MC사업부문 실적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각 사 사업보고서

### C30. 자동차 :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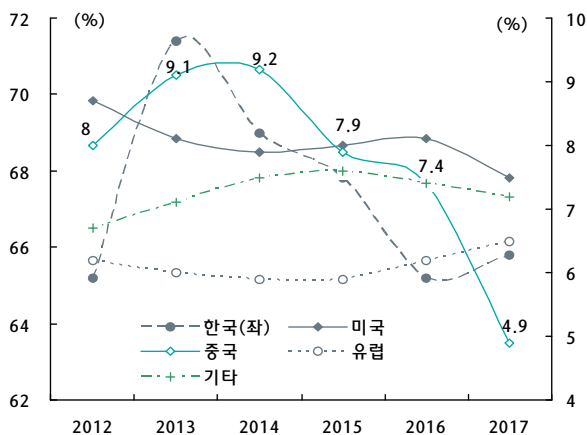
※ **Summary** :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요부진, 경쟁심화, 그리고 구조적 경쟁력 약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유증, 신흥국 환율의 부정적 효과, 그리고 미국發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019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Comment** : 금융그룹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선별적인 여신공급 기초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용여건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요부진, 경쟁심화, 그리고 구조적 경쟁력 약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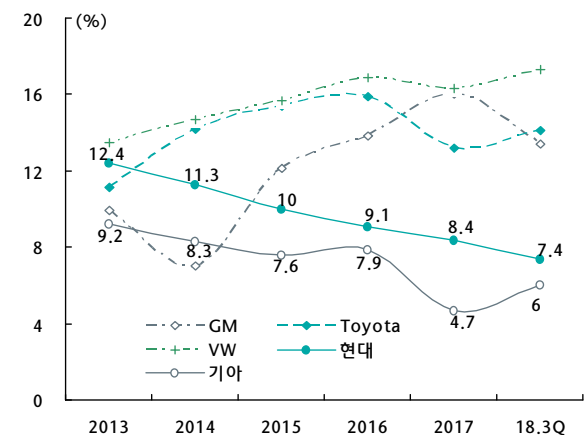
-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소형SUV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미흡, 가격 경쟁력 약화, 모델 노후화 등으로 구조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10월 31일 S&P는 현대/기아/모비스 주력 3사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변경
- 실제로 중국의 정책 효과 희석과 사드 후유증, 미국의 할부금리 상승과 경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2014년 9.2%를 정점으로 2017년 4.9%까지 하락
- 특히,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에서 미/중 양대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 양대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음
  - 미/중 법인의 순손익이 대규모 적자 (-7,500억원에서 -1,600억원 정도)를 기록 중

그림27 |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동향



자료 : WardsAuto, 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8 | 현대/기아차의 EBITDA마진 동향



자료 : Bloomberg (현대/기아만 2사분기 누적 기준)

■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유증과 신흥국 환율 변동성 및 미국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019년에도 국내 자동차산업의 가시적인 실적 개선은 불투명할 전망

- 올해 상반기 미국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영구적인 폐쇄 결정이 국내 1~2차 벤더들의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고, 2019년에도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될 전망
  - 자동차부품업체인 이원솔루텍은 한국지엠의 1차 벤더로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이며, 완성차업체의 위기가 대형 부품업체로 이어진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그리고 미국발 긴축, 달러 강세로 인해 신흥국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 진출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환차손 위험이 상존할 전망
  - 올해 3사분기 환율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은 원/해알(-20.6%), 원/루블(-10.9%), 원/루피(-9.1%)로 나타나 신흥 시장에 진출한 부품사의 환차손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 중
- 또 美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향후 금융그룹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선별적인 여신공급 기초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용여건 격차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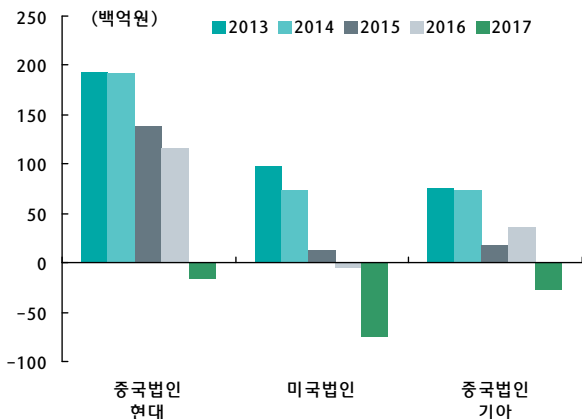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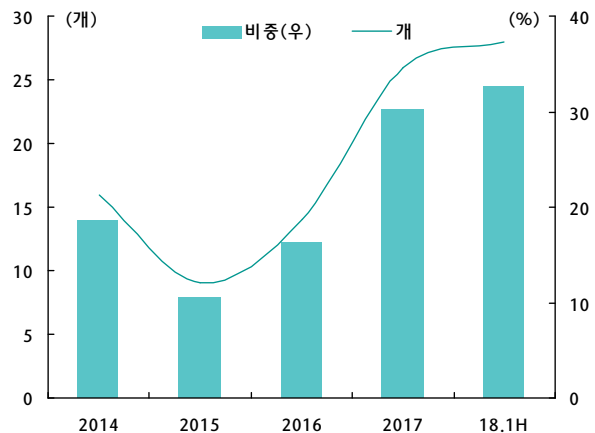
-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부진에서 시작된 위기가 자동차부품업체로 전이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음
  - 86개 상장회사 중 영업적자 비중이 2015년 11%에서 2018년 상반기 33%로 3배 상승
- 이에 대해 금융그룹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업체별로 선별적인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신용여건에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그림29 | 미/중 주요 법인별 순손익 동향



자료 : 현대, 기아

그림30 | 영업적자를 기록한 부품회사 동향



자료 : Kis-Value

### C31. 조선 : 해운업 수급개선과 환경규제로 점진적 회복세 지속 전망

※ **Summary** : 2018년 조선산업은 LNG선 발주 증가 등으로 인해 점진적인 회복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내년 역시 해운업 수급개선, 2020년 환경규제 시행, 건조한 LNG선 발주로 올해대비 발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내년 국내 주요 조선업체 실적의 경우 매출은 2017년 수주분 건조 등으로 올해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임(대우조선해양은 감익)

※ **Comment** : 조선업은 내년에도 발주량 및 선가의 점진적인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LNG선 발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18년 조선산업은 점진적인 회복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국내 조선소는 LNG선 발주 수혜
  - 올해 1~11월 누적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6백만CGT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여 선박 발주 회복세가 이어졌으며, 클락슨 신조선가 또한 1월에서 11월까지 4p 상승
    -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올해 1월 126p에서 4p 상승하여 11월 현재 130p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후판가격이 많이 상승한 점 고려 시 선가 상승에 따른 조선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 특히 동기간 한국 조선소 합산 수주량은 LNG선의 발주 증가 및 한국 주요 조선소의 LNG선 독점적 수주로 전년동기대비 64.2%나 증가한 10.9백만CGT를 기록
    - 올해 11월 누적 LNG선 발주량은 4.3백만CGT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335.9% 증가하였으며, 이는 환경규제에 따른 중국의 LNG 수입 증가와 LNG 수입국 증가 등에 기인
    - 올해 11월 1일 수주잔량 기준 국가별 LNG선 시장점유율은 한국 77%, 일본 15%, 중국 8%
- 내년에도 해운업 수급 개선, 환경규제 및 LNG선 발주 강세 지속으로 조선업의 회복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9년 역시 꾸준히 지속되는 해운업 수급 개선, 2020년 시행되는 환경규제, LNG선 발주 강세 지속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 회복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신규 발주량이 과거대비 크게 낮아져 전 선종에 걸쳐 선박량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환경규제로 경제성 없는 노후선 폐선이 증가하여 발주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내년 LNG선 물동량 증가율은 올해대비 다소 낮아지면서 LNG선 발주량 또한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건조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올해와 내년 LNG선 물동량은 각각 전년대비 약 12%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LNG선은 중국 조선소와의 기술 격차가 뚜렷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조선소 독점 수주 지속 예상

■ **올해 국내 주요 조선소의 신규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의 발주 침체, 선가 하락 및 후판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조선업체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국내 주요 조선소의 10월 누적 신규수주는 현대중공업 그룹(미포 및 삼호 포함)과 대우조선해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발주 감소로 축소
  - 신규 수주(2017년 10월/2018년 10월 누적) 금액 : 현대중공업 그룹 78억 달러/118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26억 달러/46억 달러, 삼성중공업 65억 달러/49억 달러
-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현대중공업 그룹의 수주잔고는 265억 달러로 '17년 말 대비 증가한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수주잔고의 감소세가 지속됨
- 주요 조선소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현대중공업 -1,478억원, 대우조선해양 7,170억원(OPM 10.6%), 삼성중공업 -3,096억원을 기록하여 대우조선해양만이 높은 LNG선 건조 비중(올해 예상 LNG선 매출 비중 약 51%)과 일회성 비용 선 반영으로 흑자

■ **내년에는 실적이 소폭 개선되겠지만, 발주 회복 대비 실적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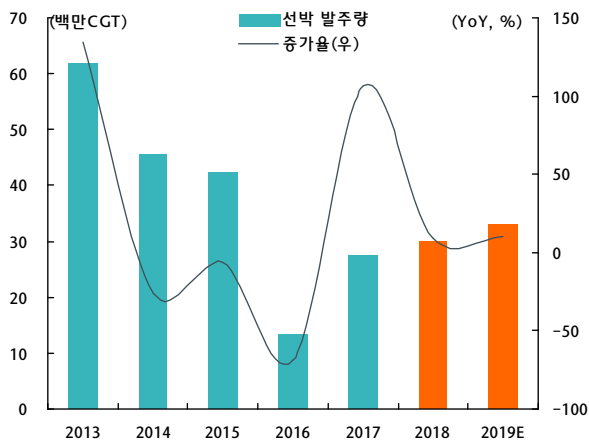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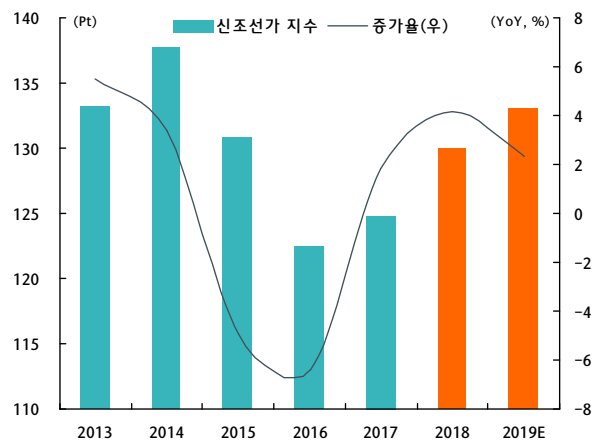
- 내년에는 2017년 수주분 건조 등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대비 소폭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수익성 또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건조선종 Mix 변화와 충당금 환입 효과 감소로 영업이익률 다소 하락 예상
- 국내 주요 조선업체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선가의 상승이 전체되어야하나, 내년 선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익성 개선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31 |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32 |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추이 및 전망



주 :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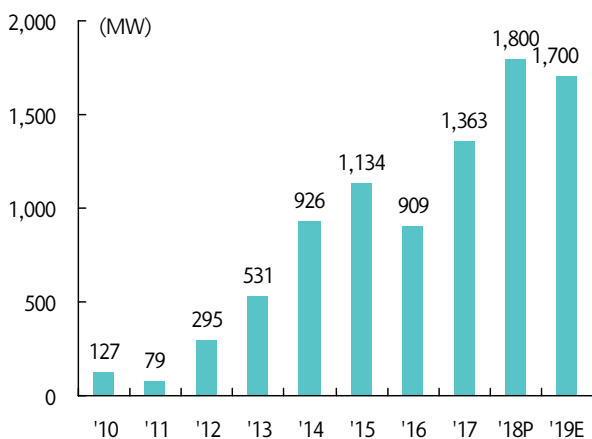
## D. 발전 : 태양광 발전, 발전소 입지 선정 요건 강화, 환경갈등 문제 등으로 둔화 예상

※ **Summary** : 2018년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약 1.8GW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발전소 입지 선정 요건 강화, 민원 및 환경갈등 문제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7GW가 될 전망. 주민참여를 통해 환경갈등을 최대한 완화해 나가는 것이 태양광 확대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현물 REC 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이 예상되어 약세가 지속될 전망

※ **Comment** : 현물시장 거래 프로젝트는 주의가 필요하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등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검토 및 지원할 필요

- 2018년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약 1.8GW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수십~수백 kW급 중소규모 발전소가 크게 확대
  -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설치 수요가 크게 늘어나 2018년 1~3분기 합산 설치량은 1.4GW를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는 약 1.8GW 수준이 예상
  - 1MW 이상 대형 발전소보다는 수십~수백kW급 중소규모를 중심으로 설치가 증가
    - 2018년 1~9월 100kW미만 발전소는 695개, 100kW이상 1MW미만 발전소는 355개가 늘어난 반면 1MW 이상 대형 발전소는 5개에 그침
  - 이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등 소규모 발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확대했기 때문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를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25~40%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여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지는 지속될 전망

그림33 | 국내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 전망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2 | 국내 태양광 RPS설비 등록 변화

구분		2016	2017	2018.9
발전소 수(개)	100kW미만	3,302	4,174	4,869
	100kW이상, 1MW미만	675	1,064	1,419
	1MW 이상	79	134	139
발전소 용량 (MW)	100kW미만	278.6	349.0	408.9
	100kW이상, 1MW 미만	319.4	474.1	624.4
	1MW 이상	205.9	297.2	303.3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9년에는 환경갈등 문제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7GW 수준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 참여를 늘리는 것이 관건

- 태양광 발전소가 빠르게 늘어나며 환경훼손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등을 시행하며 규제를 강화
- 과거보다 입지선정 요건이 까다로워져 발전소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안으로 전국 저수지, 우수지 등에 수상 태양광을 확대할 계획이나 주민 반대가 거센 편
  - 2018년 10월말 기준, 농어촌공사가 전국에서 수상 태양광 공사 및 허가를 진행중인 사업은 총 771개로 발전용량은 총 1,904MW 수준이며, 최근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재정비 중
- 주민 참여를 늘려 환경훼손 등에 대한 사회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

■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REC 공급이 늘어나며 현물가격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고정가격계약 등으로 안정성 확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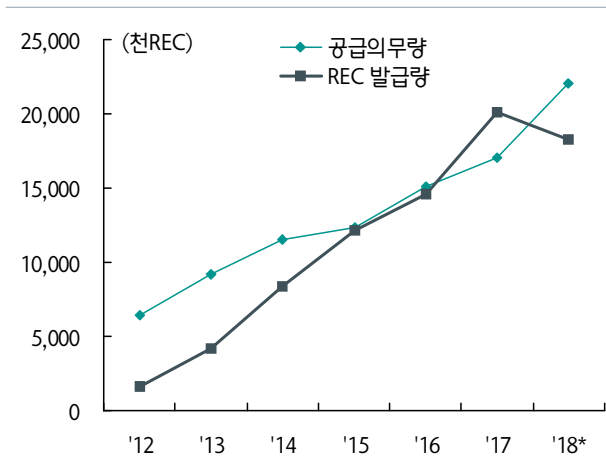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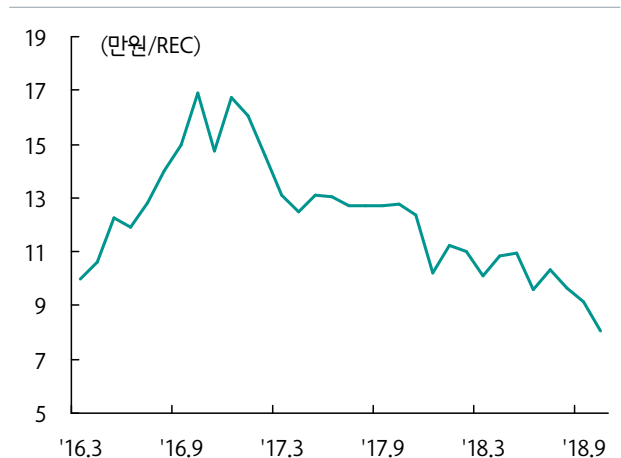
- REC 공급 확대로 2017년 초 16만원 수준이던 현물 REC 가격은 2018년 10월 8만원까지 하락
  - REC 수급은 2015~2016년 균형을 유지하다 2017년부터 초과공급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에도 1~9월 REC 발급량이 의무량의 83%를 차지하는 등 공급확대 지속
- RPS 의무비율 상승폭(2018년 5% → 2019년 6%)보다 REC 공급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REC 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물시장 거래 프로젝트는 주의가 필요하며, 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사업 안정성 확보할 필요 

그림34 | REC 공급 동향



주 : REC 발급량중 2018년은 1~9월 합산 기준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공공데이터포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35 | 현물 REC 가격



자료 : 전력거래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F. 건설업 : 건설경기 활황국면에서 벗어나 후퇴기에 진입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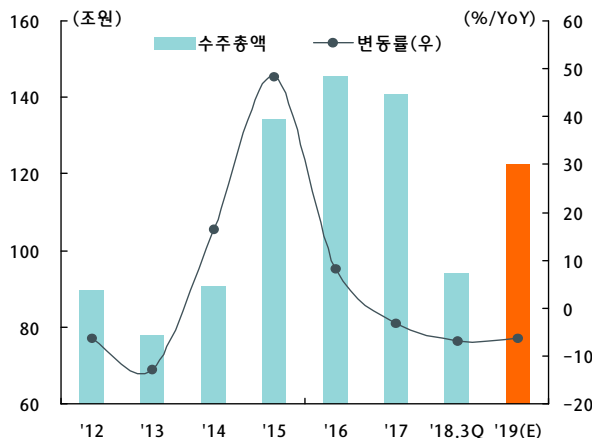
※ **Summary** : 저금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었던 건설경기가 후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주택부문은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요억제 기조 지속이, 토목부문은 정부의 SOC 예산감축이, 해외부문은 저유가로 인한 중동지역의 발주정체 등이 원인임. GTX 등 민자사업 확대될 예정이나 전체적인 후퇴기 진입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Comment** : 건설 경기 국면이 전환되면서 한계기업 발생 가능성 확대에 유의해야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거점을 둔 건설사의 재무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건설 경기 그 동안 이어진 활황국면 벗어나 후퇴기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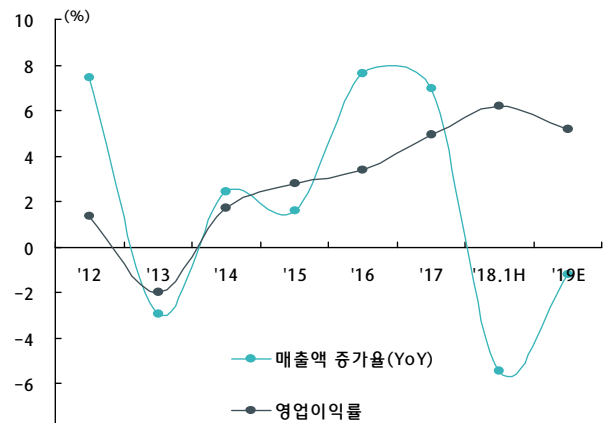
- 건설 수주액이 전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건설 수주액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건설 수주액 변동률(YoY) : 48.4%('15년) → -3.1%('17년) → -7.1%('18.3분기 누적)
- 건설업체 매출액도 5년만에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건설시장 후퇴기 진입의 영향이 상장 건설업체의 실적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 매출액 감소세는 기저효과로 인해 둔화될 전망이다이나 건설기성 감소가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우려됨
-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건설경기 활황 장기화에 따른 공급증가와 이로 인한 수급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경기는 내년부터 후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우려되며 건설업체 경영실적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36 | 건설 수주액



자료 : 대한건설협회

그림37 | 상장 건설사 영업 실적



주 : 상장 종합건설업체(38개사) 합산 실적  
자료 :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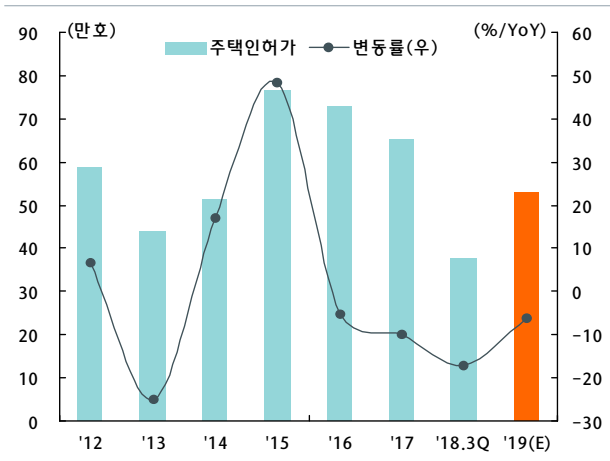
■ 규제강화에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건축부문의 역성장 우려

- 건설부문 수주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부문에 수요 및 공급 모두에서 악재가 이어지면서 건축부문의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
  - 건축부문 수주 총액 : 66.6조원(2014년) → 114.8조원(2016년) → 107.3조원(2017년)
- 주택부문의 가장 큰 악재는 공급의 증가로 주택경기 활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된 주택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중
  - 3분기 누적 준공실적 : 36.5만호(2016년) → 41.2만호(2017년) → 45.6만호(2018년)
-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주택건설 부문 역성장 우려 원인 중 하나
  -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0.2%('18.8월) → 1.0%('18.9월) → 0.2%('18.11월)

■ 민간소비 회복 지연, 공급과잉 등으로 비주거용 건물부문 역시 후퇴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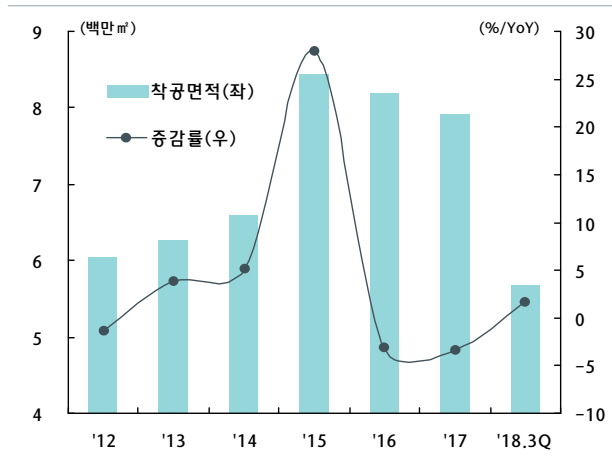
- 베이비 부머 및 에코 베이비 부머의 지속적인 은퇴, 낮은 직업 안정성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잠재 수요는 탄탄한 실정
  - 향후 20년간 현 인구의 1/3인 1,720만명이 지속적으로 은퇴연령(만 60세)에 도달할 예정
  -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년수는 5.6년으로 OECD 평균(9.5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
- 다만, 부동산 시장 활황 장기화로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이 2015년 이후 크게 확대되면서 공급물량이 누적되는 내년부터 공급과잉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
  - 민간소비 회복 지연으로 안정적인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저하 및 투자수요 감소 역시 우려되고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

그림38 | 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39 | 비주거용 건물 착공 실적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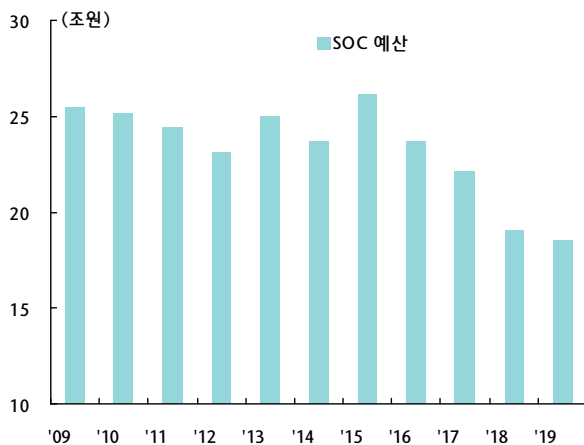
## ■ 정부의 SOC 예산 규모 감소로 토목부문 위축은 지속될 전망

- 보편복지 강조로 인해 국토부 예산 내에서도 주거복지 등 복지분야 예산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SOC 예산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국토부 예산 중 복지부문(기금 포함) : 24.5조원(2018년) → 27.9조원(2019년)
- 공공부문의 토목수주가 전체 토목부문 수주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속적인 SOC 예산 감소는 토목부문 위축세 지속으로 이어질 전망
  - SOC 수주액 중 공공부문 비중 : 도로·교량(82.5%), 철도 등(80.7%)
- GTX 발주 등 민자 투자 확대를 통한 토목 수주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 토목부문 수주액 규모를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현재 사업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가 선정된 GTX-A 노선의 경우 총 사업비는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7년 토목부문 수주 총액(33.6조원)의 8.9%에 불과

## ■ 도시재생 뉴딜, 생활기반 SOC 확충 등은 지자체 재정 여력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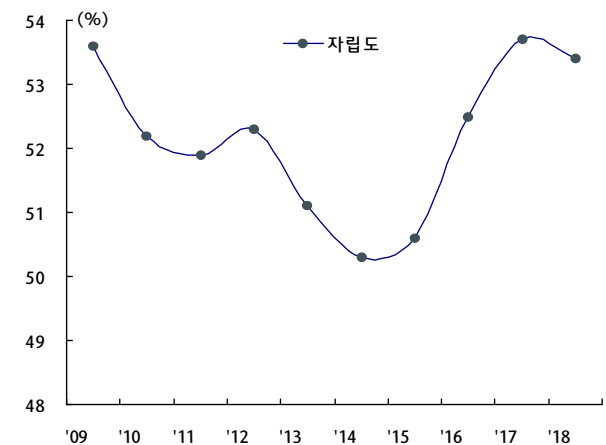
-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이나 생활기반 SOC 확충 등은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부족한 재원은 재정 및 기금의 지원, 공공기관의 참여 등으로 충당
  - 재원 조달(연평균) : 국비 등 2조원, 주택도시기금 등 4.9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 지자체가 선투자한 이후 재정지원 등이 가능한 구조이나 대상 지역들의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낙후된 원도심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대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반면 정부의 보편복지 상당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

그림40 | 정부 SOC 예산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41 |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추이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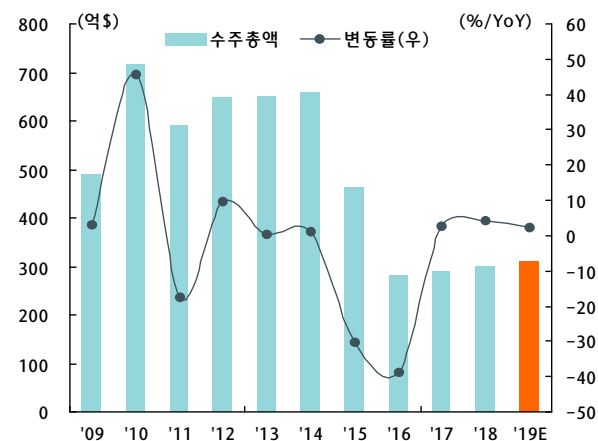
■ **저유가 지속으로 중동지역 수주 회복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

- 전통적인 수주지역인 중동지역의 수주액은 유가가 급락한 2015년 이후 회복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음
  - 두바이유 유가(\$/bbl) : 101.1(2014.8월) → 45.7(2015.1월) → 80.0(2018.9월) → 58.6(2018.11월)
- 2018년 들어 유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11월 들어 다시 급락하는 등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중동지역의 수주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중동국가들의 재정압박으로 우리나라 건설사가 선호하는 도급 형의 비중은 낮아지고 투자개발형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해외건설 수주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
  - 2018년 수주액 중 개발(개발공개, 개발지명, 개발수의)형의 비중은 전체 수주액의 3.9%

■ **고성장 예상되는 아시아 권역의 수주 확대되면서 해외수주 전반의 소폭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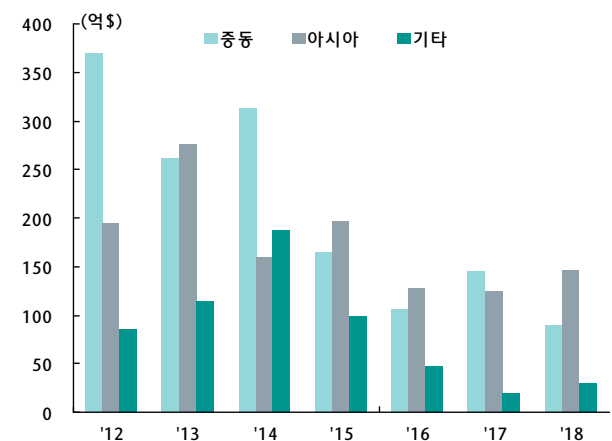
- 아시아 권역의 수주액 역시 유가 급락 이후 크게 감소했으나 탄탄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건축, 인프라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중동의 수주액을 상회
  - 2018년 권역별 수주액 : 아시아 14.7억불, 중동 9.0억불, 기타 3.0억불
- ASEAN 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향후 경제성장률이 5%대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발전(플랜트), 도로·항만(인프라) 등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어 중동지역 수주 감소를 일부 만회할 것으로 기대
  - ASEAN 5 경제성장률(IMF) : 5.3%(2018년) → 5.2%(2019년) → 5.2%(2020년)

그림42 | 해외 건설 수주액



자료 : 해외건설협회

그림43 | 권역별 해외 건설 수주액



주 : 2018년 수주액은 2018.11월말까지의 누적액  
 자료 : 해외건설협회

## G. 종합유통 : 성장을 둔화 속에 업태별 차별화된 실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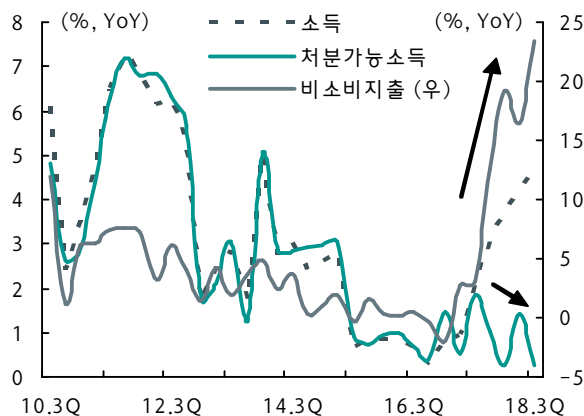
※ **Summary** : 비소비지출 부담 증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2019년 전체 소매 시장은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판관비 증가에 따라 수익성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 업태별로는 성장성이 약화된 편의점, 대형마트의 점포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백화점, 온라인, 면세점에 대해서는 백화점의 성장 둔화와 온라인 및 면세점의 경쟁 심화 예상

※ **Comment** : 소매 시장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점포 구조조정, 온라인과 면세점의 경쟁 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접근 필요

### ■ 고령화, 이자 비용 및 조세 부담 등에 따른 비소비지출의 증가와 대내외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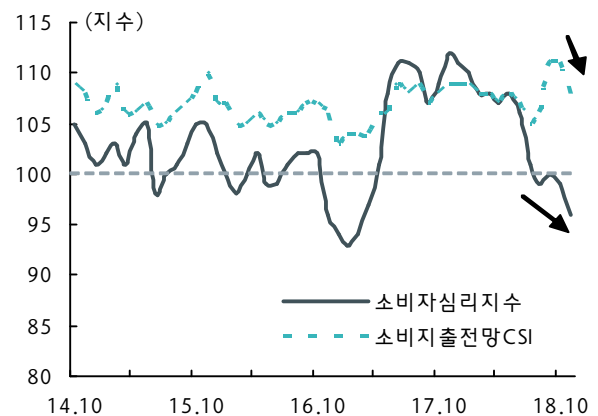
-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가계 소득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
  - 2018년 3분기 가계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비소비지출은 23.3%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0.3% 증가에 그침
- 비소비지출은 이자 비용, 조세 및 연금 부담을 포함하며, 2019년에도 높은 가계 부채 수준과 금리 인상 가능성, 복지 정책 확대 및 고령화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하여 비소비지출이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또한, 미·중 무역 분쟁, 국내 고용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면서 상반기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3.5p 하락하며 기준점(100) 하회

그림44 | 가계 소득, 비소비지출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45 |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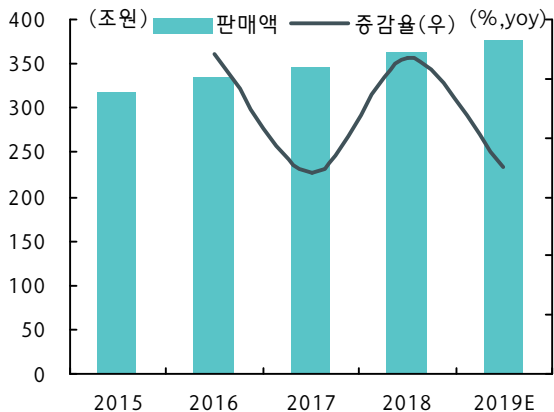
■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 시장은 2019년, 소비심리 위축, 비소비지출 부담에 따른 성장을 둔화와 판관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 2018년,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은 신정부 기대감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전년도 낮은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 시현
  - 순수소매판매액은 2018년 약 36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5.4% 성장 추정
- 최근 위축되고 있는 소비심리와 비소비지출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소매 시장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인건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3.5% 수준의 성장 예상
- 또한,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 인상률,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등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반적인 수익성도 다소 악화될 전망
  - 특히 편의점, 대형마트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성장성이 약화된 편의점, 대형마트 시장에서는 점포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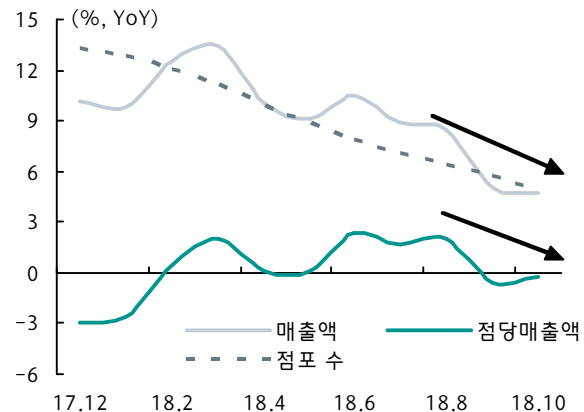
-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과잉 점포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 성장률이 둔화 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신규 출점이 축소되면서 성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018년 상반기까지 전년동월대비 약 10% 수준을 유지하던 편의점 전체 매출액 성장률은 10월에는 4.7%로 크게 둔화
- 상위업체들을 중심으로 신규 출점을 자제해 왔으나, 여전히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에도 점포 구조조정이 지속될 전망
  - 2018년 10월, 편의점 점포 순증률이 4.9%로 둔화되었음에도 점당매출액은 0.2% 감소

그림46 | 소매판매액 추이 및 전망



주 : 차량 및 연료 판매액을 제외한 순수소매판매액 기준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47 | 편의점 매출액, 점포수 증감률 추이



자료 : 산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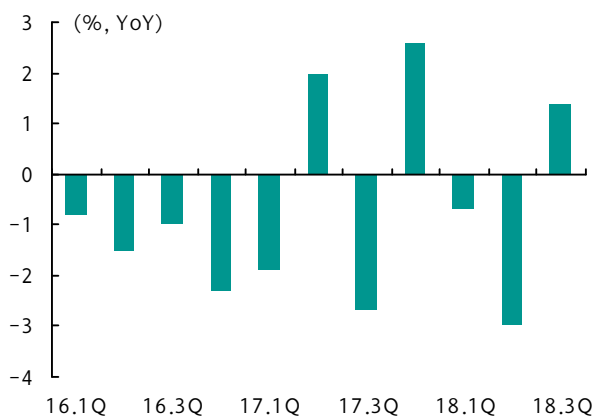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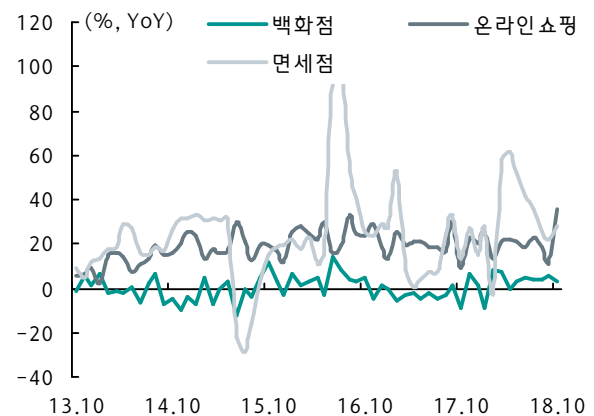
- 시장 성숙기 도래, 규제 강화(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성장성이 약화된 대형 마트는 부실점포 정리와 온라인 사업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전망
  - 이마트(부평점, 대구시지점), 홈플러스(동김해점, 중동점), 롯데마트(동대전점) 등의 부실점 폐점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음
  
-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백화점, 온라인, 면세점 중에서 백화점은 성장성 둔화가 예상되며, 온라인과 면세점은 대기업 참여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가 예상됨
  - 백화점은 해외 명품 호조와 VIP 매출 증가로 2018년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9년, 자산 가치 상승 여력의 축소, 소비 심리 위축, 역기저효과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신 소비시장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내 점유율 확보 노력이 지속될 전망
    - 그 동안은 현대백화점 관교점, 갤러리아 광고점 개점 등의 경기 남부권 변화가 활발했으며 내년부터 신세계 인천점의 롯데 백화점 전환(2019년), 현대 여의도점 개점(2020년) 등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경쟁 구도 변화가 활발해질 전망
  - 온라인 쇼핑물은 식품 판매 증가와 대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성은 유지되지만, 물류 및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이마트, 쿠팡 등은 계열사 자금, 투자금 등으로 물류 중심의 온라인 관련 투자 확대 계획
  - 사드 사태로 위축되었던 면세점은 다이공 매출 확대,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중국과의 긴장 완화, 신세계 및 현대의 출점 등으로 양호한 성장성 유지 전망
    - 다만, 신세계, 현대 등의 대기업 계열 신규 사업자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및 모객 비용 증가가 수반될 수 있음 

그림48 | 대형마트 매출액 증감률



자료 : 산자부

그림49 | 백화점, 온라인, 면세점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I.운수 해상운송 : 벌크선 및 탱커선 운임 개선, 컨테이너선 운임 정체 전망

※ **Summary** : 내년 해운업은 전체 선복량 대비 낮은 수주잔량 비율 고려 시 점진적인 수급개선이 지속되겠으며, 선종별로 보면 벌크선과 탱커선은 소폭의 운임 상승, 컨테이너선은 2017~2018년 운임 수준에서 정체가 예상됨. 해운업 전망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며, 최근 IMF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낮추는 등 전 세계 경기둔화 또한 운임 상승 제약요인일 것으로 보임

※ **Comment** : 컨테이너선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해운선사들은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컨테이너선사는 실적 개선에 다소 시일이 필요

- **벌크선의 수급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도는 환경규제를 앞두고 운임 상승 전망**
  - 올해 1~11월 평균 BDI 지수는 낮은 선복량 증가율과 중국의 견조한 원자재 수입으로 전년동기대비 21.5% 상승한 1,349p를 기록
  - 올해 벌크선 전체 물동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미·중 무역분쟁이 중요한 리스크 요인
  - 벌크선 전체 선복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퍼사이클 당시 투기적 발주 등으로 '09~'12년 매년 10%가 넘게 증가한 이후 하향 안정화되어 올해와 내년 3% 수준 전망
  - 종합적으로 벌크선 수급은 2016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 또한 물동량 증가율이 선복량 증가율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보여 운임의 소폭 상승이 전망됨
    - 벌크선 운임 지수(BDI)는 2016년 673p를 기록한 이후 작년 1,145p로 크게 반등하였으며, 올해는 1,300p, 내년 1,300p~1,500p 수준 전망(물동량과 선복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
  
- **탱커선 운임은 2018년을 바닥(Bottom)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초대형유조선 긍정적**
  - 올해 1~11월 평균 초대형유조선(VLCC) 운임은 \$13,058/Day로 전년동기대비 31.1% 하락하였으나, 10월부터 운임이 크게 반등하여 11월 평균 운임은 \$45,317/Day 기록
  - 같은 기간 평균 석유제품선 운임은 \$7,426/Day로 전년동기대비 19.2% 하락하였으나, 11월 운임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9,917/Day를 기록하여 VLCC와 더불어 회복
  - 내년 VLCC 운임은 선박 인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폐선 증가에 따른 선박 공급 과잉 일부 해소, 중국 정제시설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와 미국 원유 수출 증가로 2018년을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석유제품선 내년 운임은 올해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누적된 선박 공급 과잉과 낮은 물동량 증가율로 운임 상승 폭은 초대형유조선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 내년 컨테이너선 운임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점진적 수급 개선 전망

- 올해 1~11월 평균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SCFI)는 832p로 전년동기대비 0.6% 하락 하였지만, 최근 미주노선 운임 강세로 3분기 운임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 내년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2017~2018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부터 컨테이너선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
  - 2018년과 2019년 컨테이너선 수요-공급 균형 지수는 각각 83.4p와 84.3p로 예상되어 기존 전망 대비 수급개선이 더디게 진행 중이나, 중장기적으로 수급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 노선별로는 유럽 노선은 물동량이 다소 증가하면서 운임이 개선되겠지만, 미주노선과 아시아 역내는 각각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밀어내기 수요에 따른 후유증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증가에 따른 선박 캐스케이딩(Cascading) 효과로 운임 정체 예상

## ■ 컨테이너선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해운선사들은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컨테이너선사는 실적 개선에 다소 시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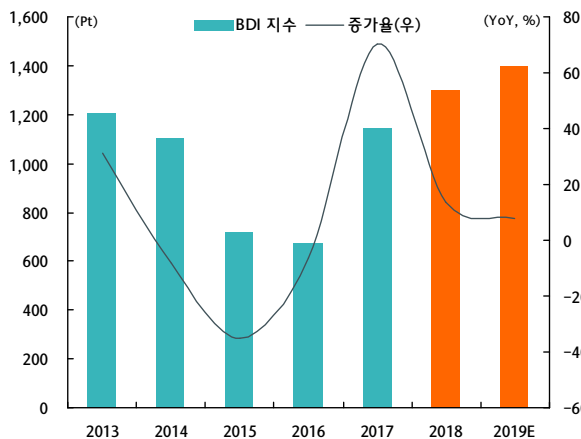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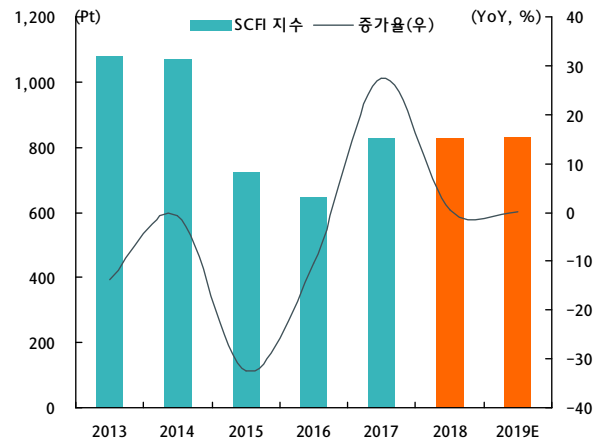
- 국내 주요 벌크선사는 구조조정 이후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Spot 또한 단기용선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운임 지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실적이 지속될 전망
  - 주요 선사 장기운송계약 매출 비중 : 팬오션 40%, 대한해운 60%, 풀라리스쉬핑 약 70%
- 반면 컨테이너선사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중이나, 현재의 컨테이너선 수급과 수주잔량 고려 시 실적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그림50 | 벌크선 운임 지수(BDI)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51 |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SCFI)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산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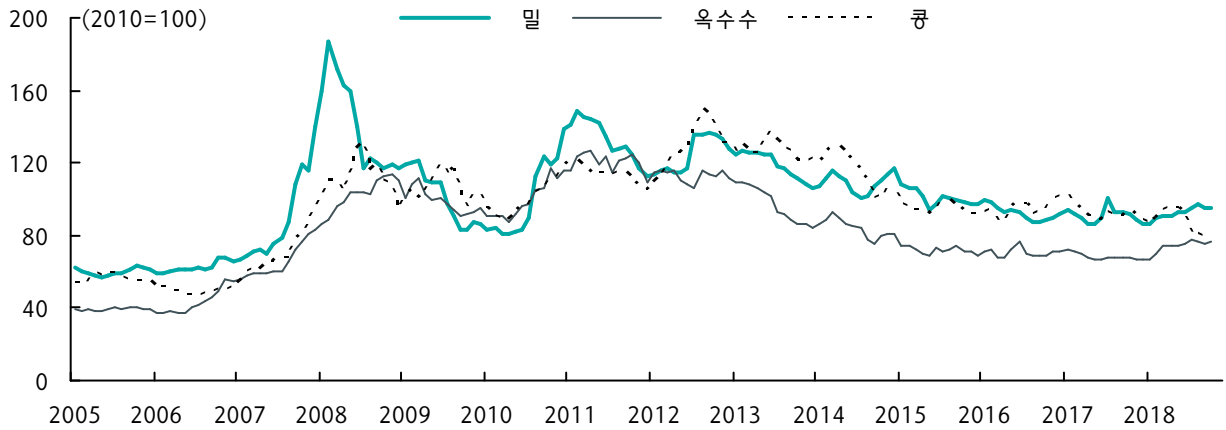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52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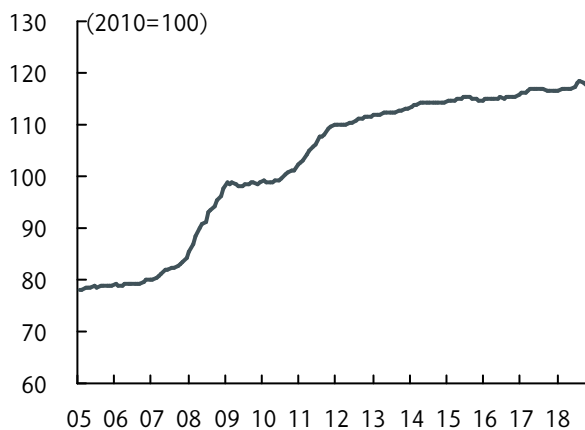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8년 국제 곡물시장은 소비 둔화 속 생산 호조로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시장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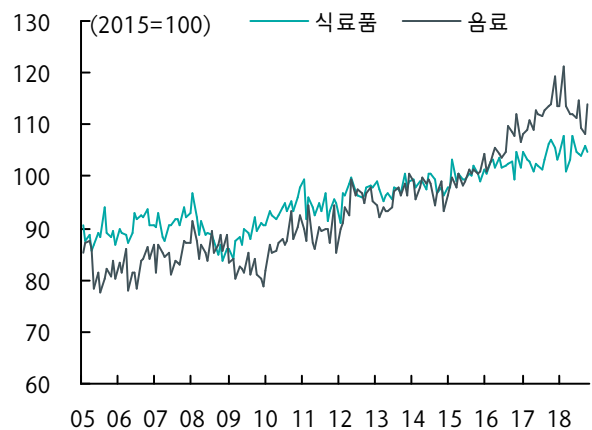
- 2012년을 고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온 국제 곡물가격이 2018년 들어 밀, 옥수수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 가격 안정 추세가 지속될 전망
- USDA(美 농무부)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18/19년 국제 곡물 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소맥, 옥수수, 대두 상승, 대두박 동일하며, 원당의 경우 지난 발표(5월 전망치) 대비 상승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정된 것으로 평가

그림 53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54 | 음식료품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상반기 제품가격 대폭 인상 후 하반기 다소 안정

- '18년 상반기 원가를 상승으로 국내 음식료 업체는 대대적인 제품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가격이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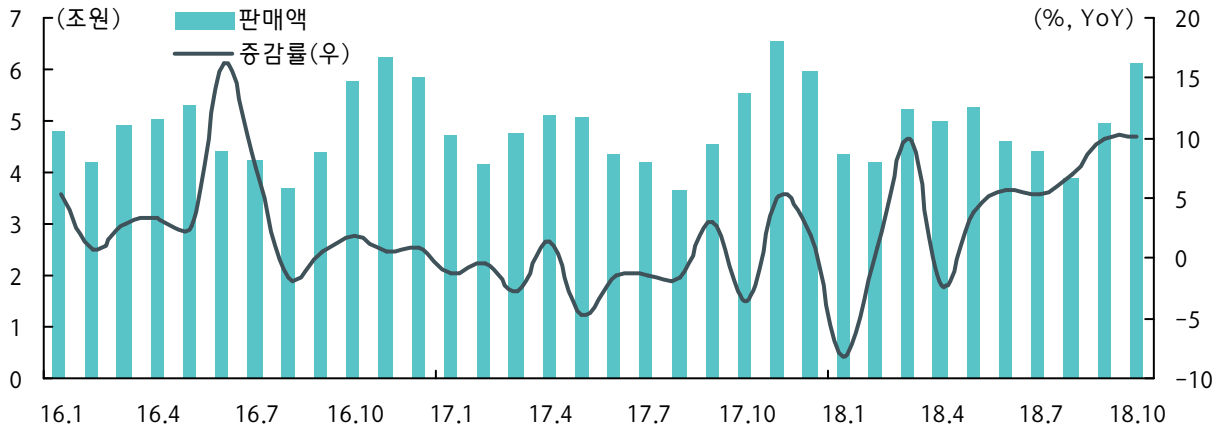
■ 10월 식료품 하락, 음료 상승으로 갭 확대

- '18년 들어 식료품과 음료 출하지수의 갭이 축소되어 왔으나, 10월 음료 출하가 상승반전하고, 식료품 출하가 늘면서 갭이 다시 확대

의류(C1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55 | 의류 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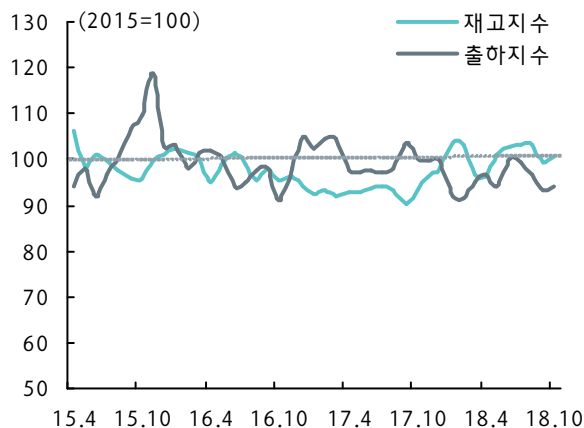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위축되었던 의류 판매액은 하반기부터 성장을 회복

- 2018년 초까지 의류 판매액은 지속적인 시장 위축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 2018년 하반기부터 이연소비의 실현과 전년 낮은 기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점차적인 성장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

그림56 | 의류 출하, 재고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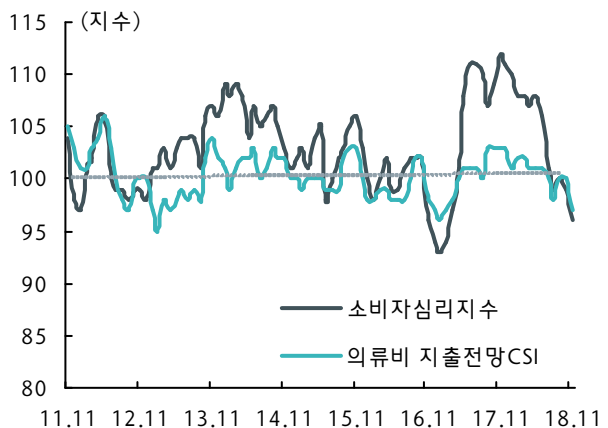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출하지수 감소 속에 재고지수의 증가세 지속

- 2018년 출하지수는 94.0으로 전년동월대비 6.3% 감소
- 재고지수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도 100.7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7.9% 증가

그림57 | 의류 관련 소비 심리 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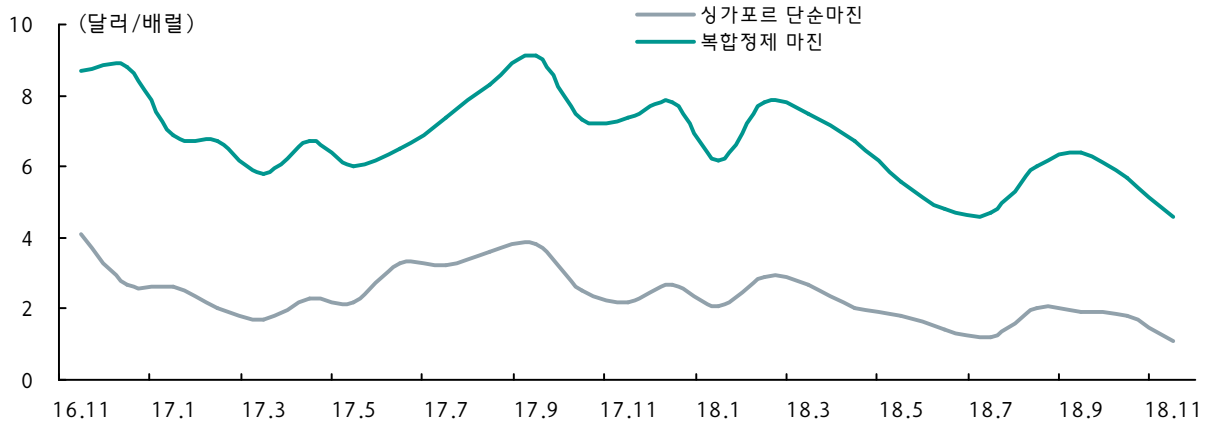
■ 소비 심리 위축으로 기준점 하회

- 회복세를 나타내었던 소비 심리가 최근 위축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와 의류지출전망 CSI 모두 11월에 96, 97을 기록하며 기준점(100) 하회

정유(C19)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58 |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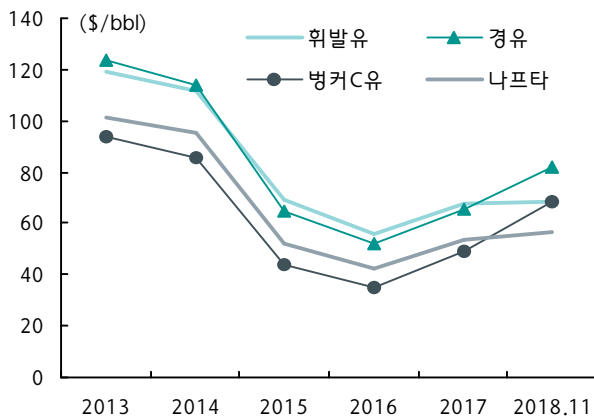


자료: Petronet

■ 11월 정유 정제마진은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배럴 당 4달러 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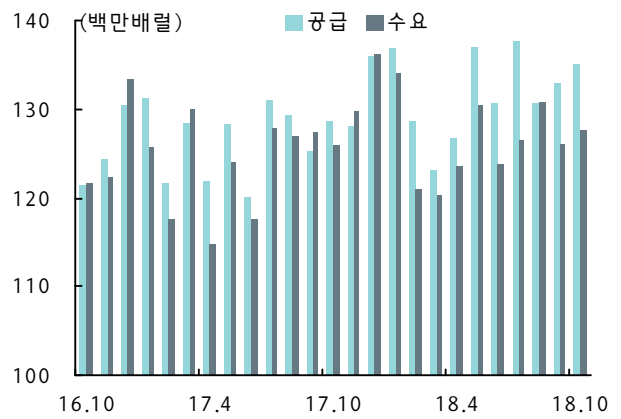
- 11월 세계 경기불안 우려로 석유제품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유럽으로부터 휘발유가 유입되면서 아시아지역 휘발유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수준인 배럴 당 4달러 대로 하락
- 최근 중국 소형정유사들이 생산량 조정을 검토 중에 있어 12월 말과 1월 사이 정제마진 회복이 기대

그림 59 | 석유제품 가격 추이



자료: Petronet

그림 60 | 국내 석유정제품 수급 추이



자료: Petronet

■ 휘발유, 나프타 공급 확대로 가격 상승세 둔화

- 유가가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세 지속
- 그러나 휘발유와 나프타의 경우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 -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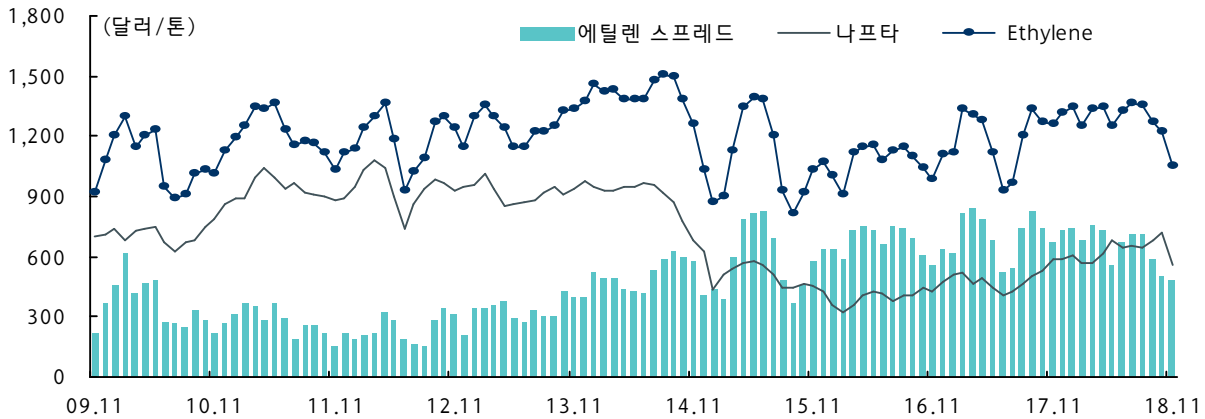
■ 내수 부진으로 초과 공급량 확대

- '18년 10월 석유 제품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체 공급은 전 - 년동기비 5.1% 증가
- 한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전년동기비 크게 감 - 소하면서 '18년 10월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동기비 수출은 석유제품 전년동기비 1.3% 증가에 그쳐 초과공급 확대

화학제품(C20-2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61 | 에틸렌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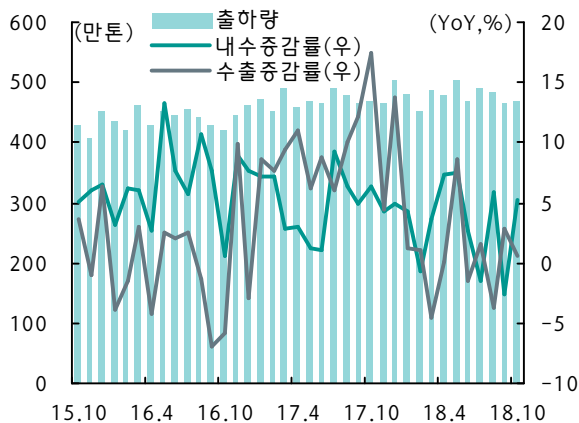


자료: Cischem

■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틸렌을 비롯한 주요제품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스프레드는 축소

- '18년 11월 미국산 저가 에틸렌 공급 확대에 따른 에틸렌 가격 약세가 이어졌으나 11월 유가 급락으로 나프타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틸렌 스프레드는 전년 동월비 약 27%나 감소한 487달러/톤으로 감소
- 북미 지역 공급확대와 함께 중미 무역분쟁 및 신흥국 통화 약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 둔화로 주요 제품의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주요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 축소가 불가피

그림62 | 석유화학제품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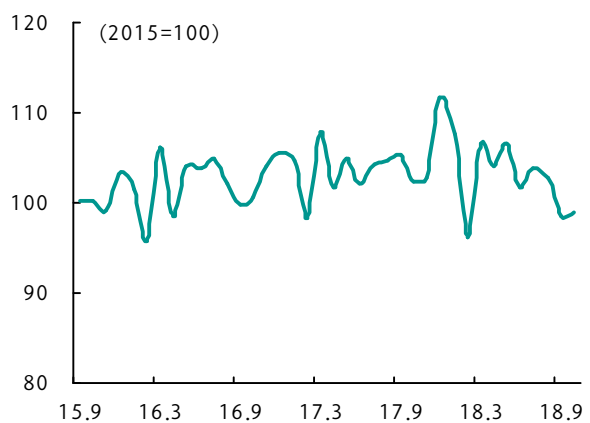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석유화학 내수 부진으로 수급개선 제한적

- 비수기 진입, 국내 수요 위축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는 전년동기비 0.6% 증가,
- 그러나 수출이 전년동기비 5.2%증가하면서 '18년 10월 주요 제품의 출하량은 전년수준으로 유지

그림63 | 석유화학제품 가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가동률 지수 소폭 하락

-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수요 둔화로 재고가 확대되면서 석유 화학 가동률 지수는 99(2015=100)으로 100을 하회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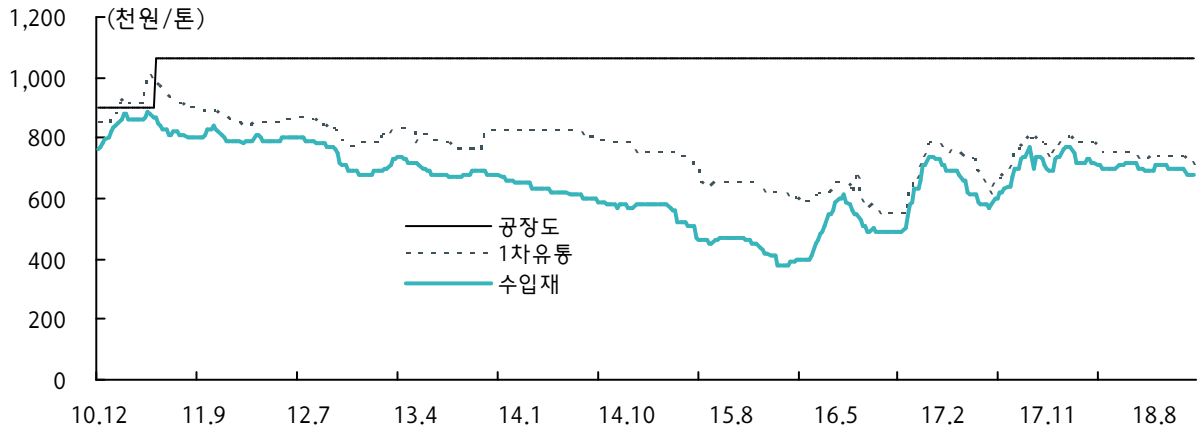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64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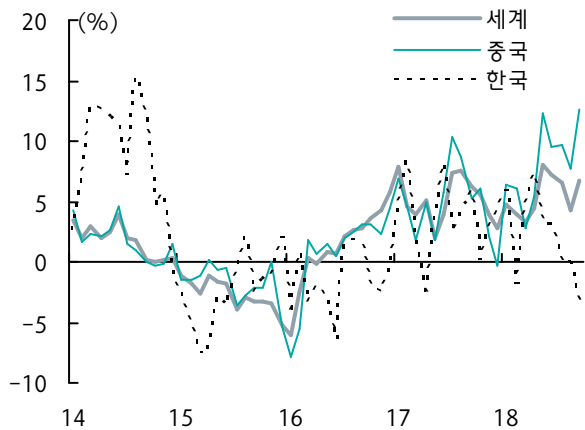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상반기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하였고, 하반기 수요산업 부진으로 하향 안정 지속

- 철강가격이 2015년 말을 저점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 들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조정
- 특히 10월 이후 중국시장이 동절기에 진입하면서 주요 제품가격이 하락하였고, 국내 또한 전방산업(건설, 자동차 등) 부진으로 제품가격 하락 가능성이 확대

그림65 | 주요국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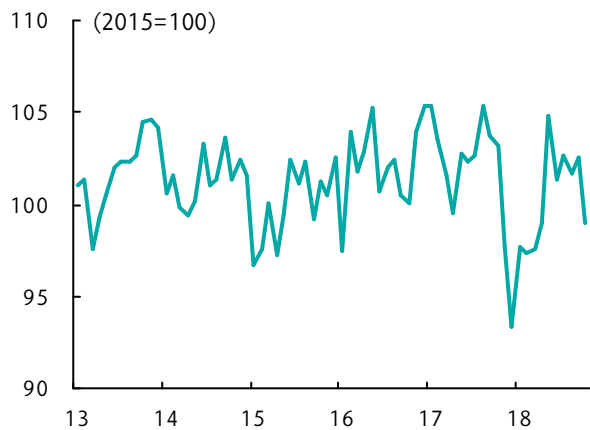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중국 조강 생산 증가 추세이나, 한국은 위축

- 최근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완화 정책으로 조강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4월을 고점으로 증가률이 하락하였고, 9월말 기준 음(-)의 성장률을 기록

그림66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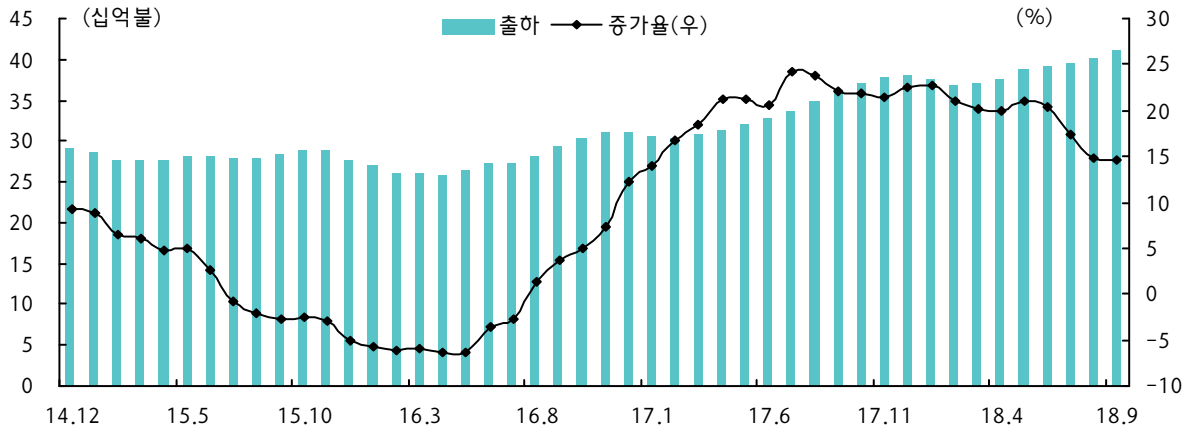
■ 하반기 국내 금속제품 출하지수가 급락

- 2018년 상반기 국내 1차 금속제품 출하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수요산업(건설, 자동차, IT 등)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시현

반도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67 | 전 세계 반도체 출하량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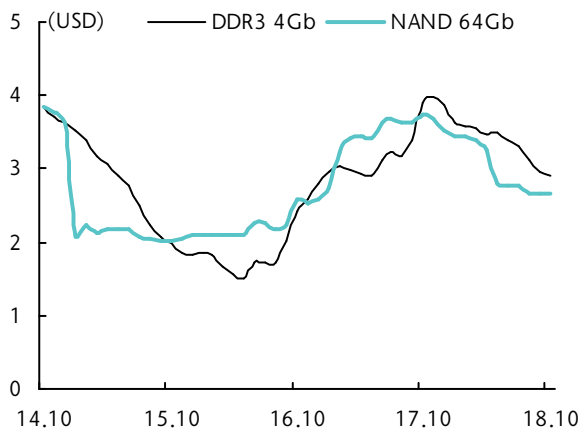


자료: SIA

■ 가격효과 사라지며 시장 성장률 낮아지고 메모리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도 있음

- 2019년에는 메모리 가격 효과가 사라지면 한자리 수준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전망
- 특히,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메모리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림68 | 메모리 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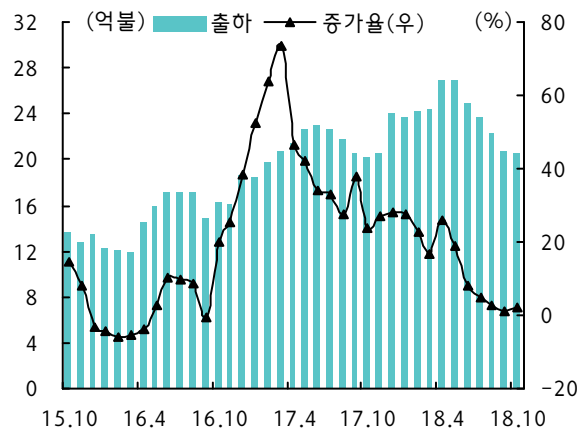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하락 지속

- 2017년 11월부터 1년 동안 가격 하락 지속 중
- 2019년에도 가격 하락은 지속될 전망
- Big2의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 유지

그림69 | 북미 반도체장비 출하 동향



자료: SEMI

■ 북미 반도체장비 출하 저성장 국면 진입

- 북미 반도체장비 출하율 20%에서 1%대로 급락
- 당분간 저성장 추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국가별로는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은 하락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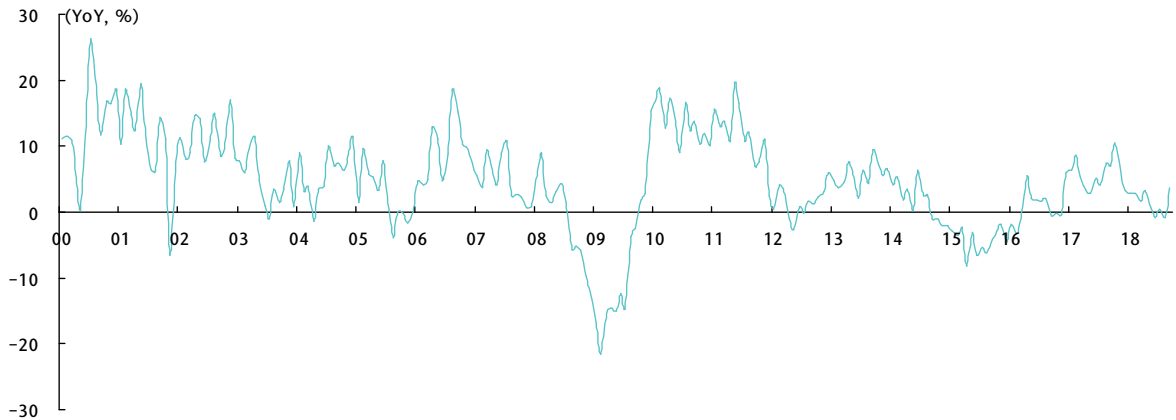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70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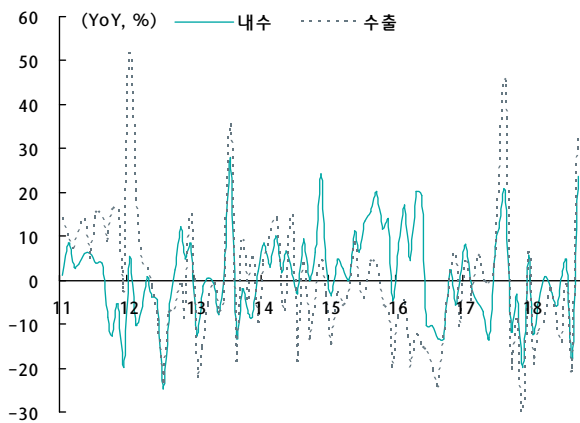


자료: 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10월 수출 물량과 금액은 올해 월 기준 최대 실적 달성

- 10월 수출은 미국과 EU향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로는 전년동월대비 33.5% 증가
- 이러한 수출 호조는 전년의 기저효과와 올해 신차(싼타페, 투싼, 코나 등)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71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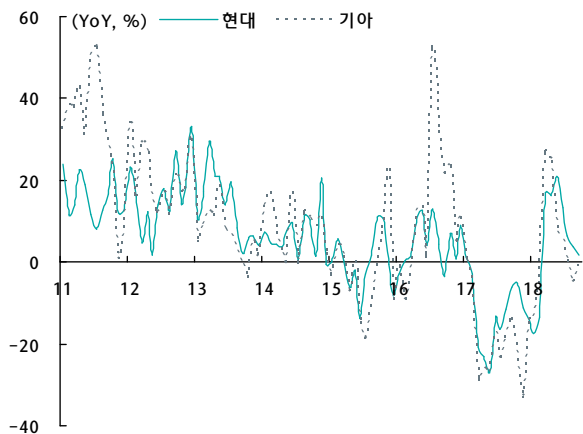


자료: KAMA

■ 10월 내수와 수출 동반 개선

- '18년 10월 내수판매는 영업일수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17년 대비 +23.5%, '16년 대비 +9.9%
- '18년 10월 수출은 신차 투입,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7년 대비 +33.5%, '16년 대비 +7.1%을 기록함

그림72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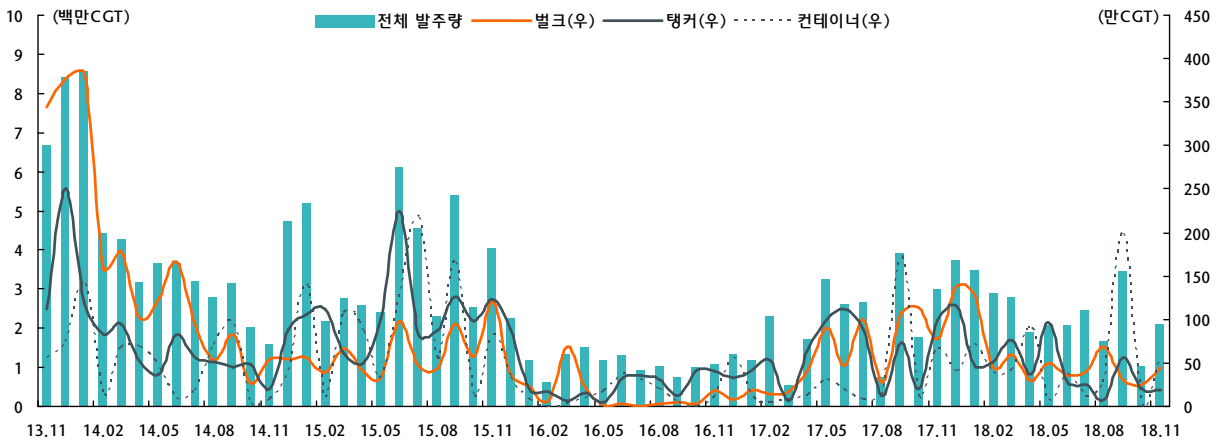
■ 10월 해외생산은 감소폭이 다소 둔화

- '18년 10월 현대/기아 해외생산은 39.5만 여대로 전월대비 +6.2%, 전년동월대비 -0.6%로 나타남
- 그러나 '16년 10월 대비로는 -7.7%를 기록하며, 아직 기저효과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보임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73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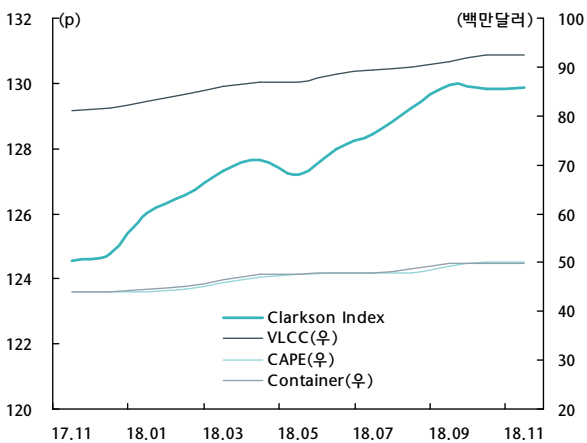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1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로 전월대비 103.0% 증가

- 11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Cape선과 소형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로 전월대비 103.0% 증가한 약 2.1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1,800TEU~3,036TEU급의 소형 컨테이너선은 무려 31척이 발주됨
- 11월 선종별 발주량 증가(전월대비) : 벌크선 +88.5%, 컨테이너선 +5,728.7%, 탱커선 -2.6%(LNG선은 4척 발주)

그림74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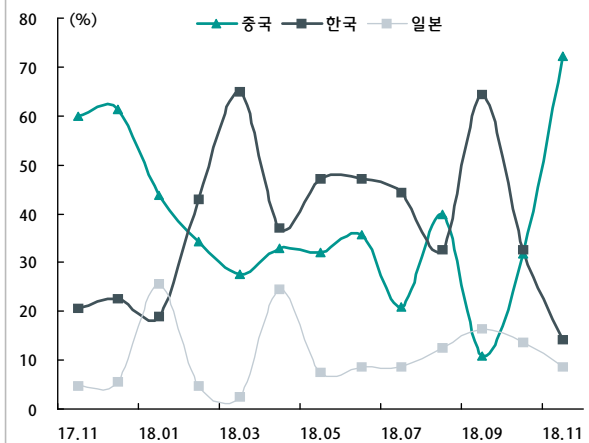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1월 신조선가 지수는 130p로 보합세

- 11월 Clarkson 신조선가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30p를 기록하였으며, 9월 이후 130p 유지 중(연초대비 +4p)
-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Cape선 5천만 달러, VLCC 9천 3백만 달러, 4,800TEU 컨테이너선 5천만 달러

그림75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자료: Clarkson

■ 11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중국이 1위 차지

- 11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소형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중국 대폭 수주에 힘입어 중국이 압도적인 1위(M/S 72%)를 차지(한국과 일본 M/S는 각각 14%와 9%)
- 11월 누적 수주점유율: 한국 42%, 중국 34%, 일본 12%

에너지(D)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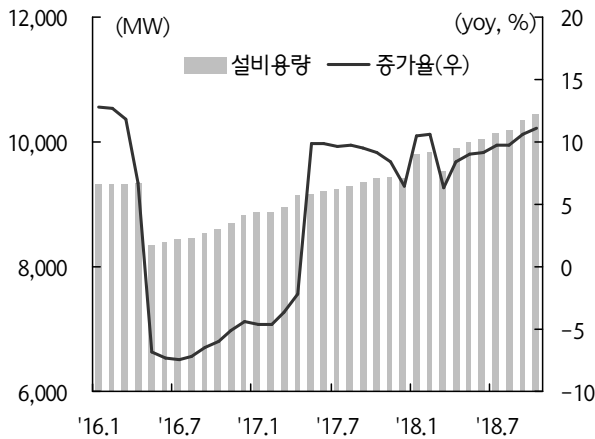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76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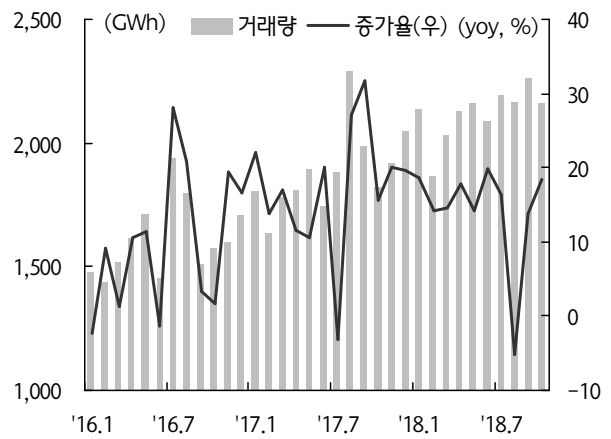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 10월 신재생 설비용량 10,446MW

- 2016년 폐기물설비 폐쇄에 따른 용량감소 이후 증가세 지속, 2018년 10월 설비용량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

그림 77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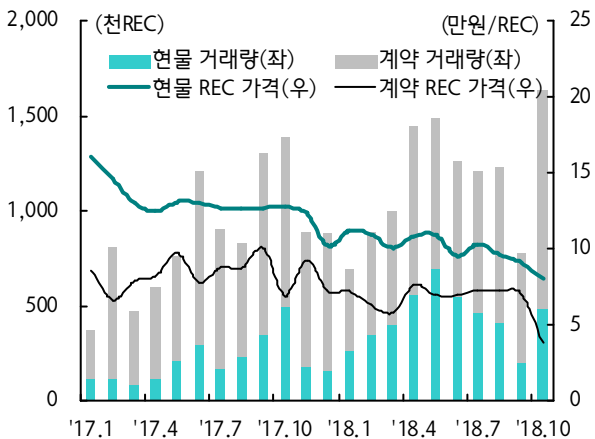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 10월 신재생 전력거래량 2,159GWh

-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전력거래량 상승세이며, 2018년 10월 전력거래량 전년동월대비 18.4% 상승

그림 78 | REC 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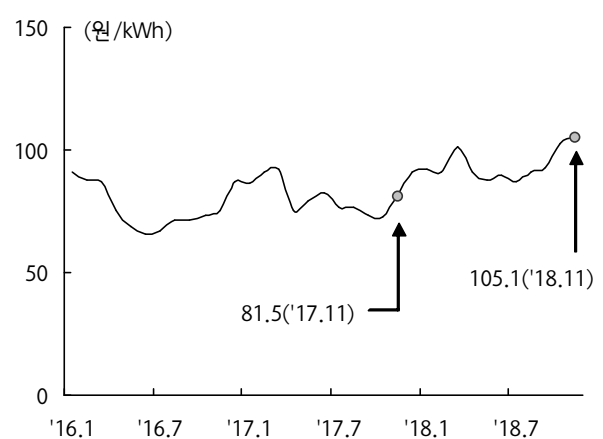


주 : '16.3월부터 태양광, 비태양광 통합 운영  
자료: 전력거래소

■ 10월 계약REC 3.9만원, 현물REC 8.0만원

- (거래량) 10월 계약거래량 약 115만REC로 전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물거래량도 48만REC로 증가  
- (가격) 현물가격 하락세 지속, 계약가격은 가중치 낮은 발전원 대규모 거래로 가격 왜곡 발생한 것으로 추정

그림 79 | SMP 동향



자료: 전력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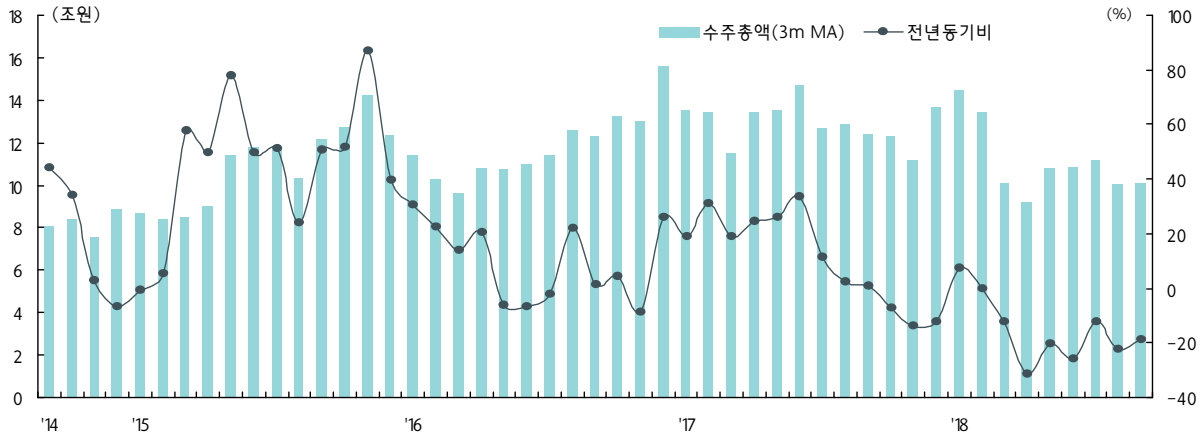
■ 11월 SMP 105.1원/kWh, 전년동월대비 상승

- LNG 열량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29.0% 상승

건설업(F)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80 | 건설사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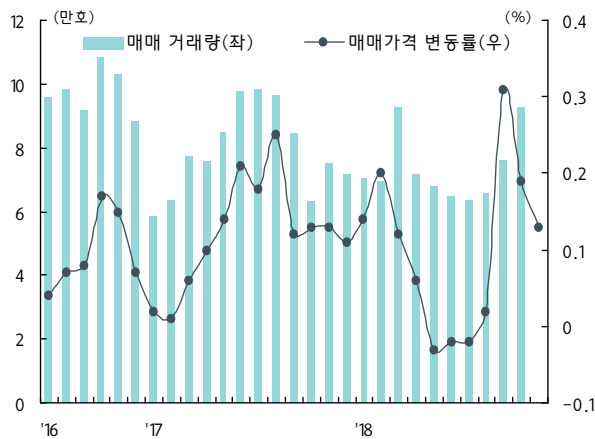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정부정책 등으로 분양 연기되면서 건설사 신규수주 감소세 지속

- '18.10월 건설 수주총액(3개월 이동평균)은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했음. 건설수주액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건축 수주가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4월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및 활황기 분양된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신규 주택 개발계획이 연기 또는 축소되고 있어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 2분기 이후 감소폭은 크게 축소될 전망

그림81 |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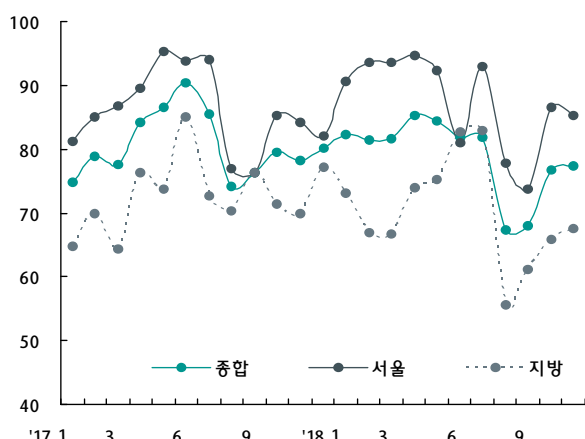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정부 규제에 대한 시장의 적응 개시

-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미뤄졌던 매매거래가 10월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
- 단, 가격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공급확대 등으로 전세가격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크게 둔화

그림82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계절성에 힘입어 건설경기 전반적으로 개선

-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설경기는 개선되었음
- 비수도권과 같이 공급과잉이 우려된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우려한 것 보다 시황은 양호한 상황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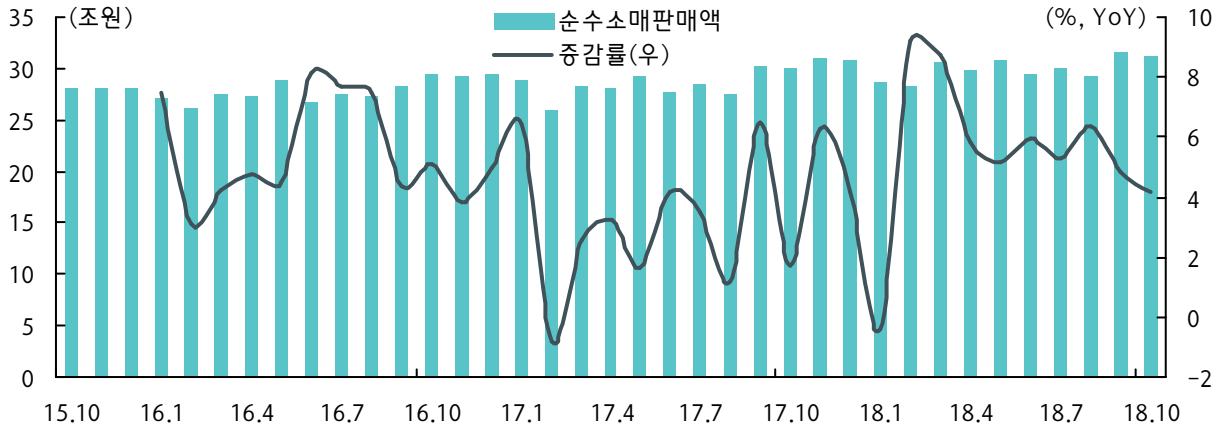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83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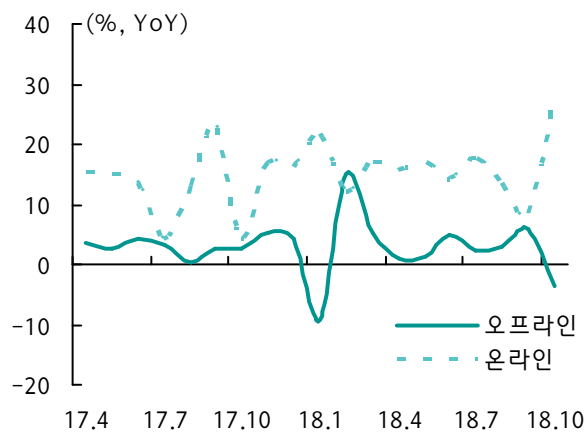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8년 10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소매판매액 성장폭 축소

- 자동차 및 연료판매액을 제외한 소매판매액은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7%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폭이 축소되면서 10월에는 전년동기대비 4.2% 성장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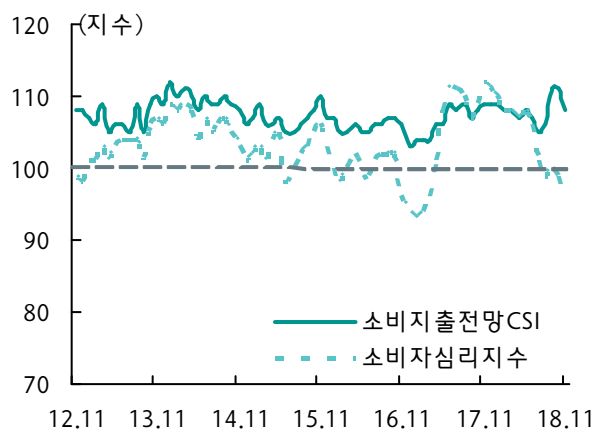
그림84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85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 10월, 이른 명절 효과로 오프라인 매출 감소

- 오프라인은 지난해보다 이른 명절로 인해(추석 : 2017년 10.4, 2018년 9.24)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온라인은 성장률을 회복하며 전년동월대비 28.3%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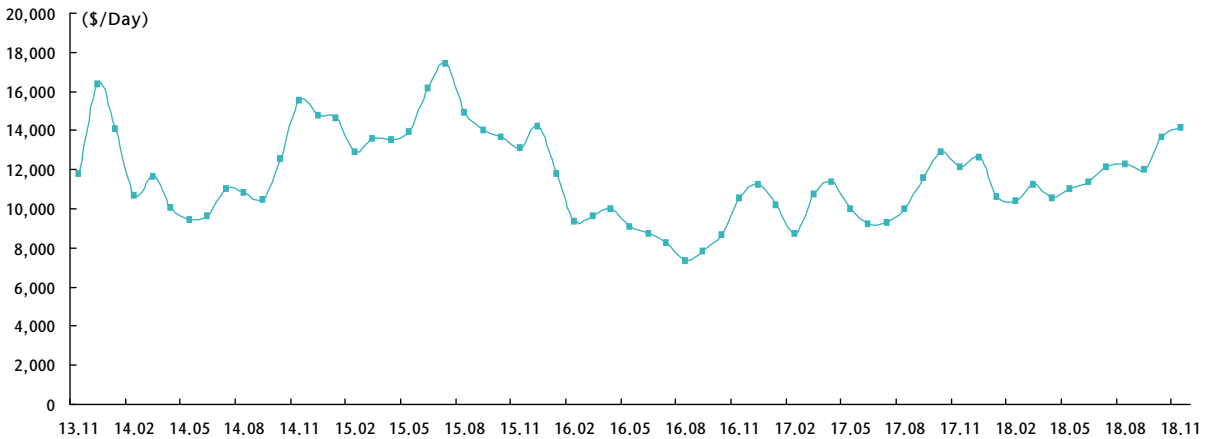
■ 대내외 경기 불안으로 소비심리 위축

- 회복세를 나타내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고용 불안 및 국내외 경기 불안을 반영하며 7월부터 위축되었으며, 10월에도 96를 기록하며 기준점(100) 하회
- 소비지출전망CSI도 전월대비 3p 하락

해상운송(I. 운수)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86 | Clarkson 해운종합지수(Clarksea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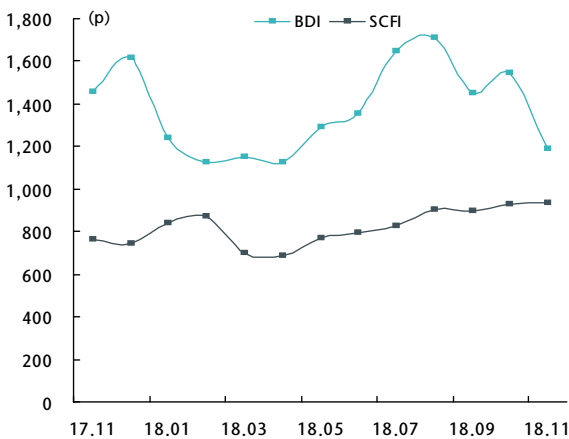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1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탱커선 운임의 큰 폭 상승에 힘입어 전월대비 3.8% 상승

- 11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전월대비 3.8% 상승한 \$14,173/Day를 기록하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운임이 각각 15.3%와 7.1% 하락한 반면 탱커선은 큰 폭으로 상승(+51.0%)
- 한편 11월 LNG선 Spot rate(160K CBM 기준)은 전월대비 37.3% 상승한 \$186,000/Day를 기록하며 강세 지속

그림87 | 벌크선(BDI) 및 컨테이너선(SCFI) 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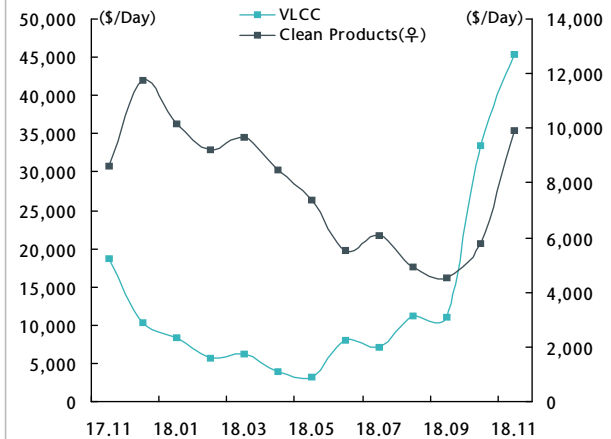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벌크선은 약세를 보인 반면 컨테이너선 강보합

- 11월 벌크선 운임 지수(BDI 지수)는 Cape선 운임 큰 폭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2.8% 하락한 1,192p 기록
- 동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SCFI 지수)는 유럽 노선 및 美 동안 운임 상승으로 전월대비 0.8% 상승한 937p 기록

그림88 | 탱커선 운임(Earnings)



자료: Clarkson

■ VLCC와 석유제품선 운임 큰 폭으로 상승

- 11월 초대형 유조선(MCC) Earnings는 수급개선으로 전월대비 35.3% 상승한 \$45,317/Day를 기록
- 동월 석유제품선 Earnings는 전월대비 72.1% 상승한 \$9,917/Day를 기록하여 VLCC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fn.com>